

## 윤석열 대통령, 한-아세안시 청년페스타 참석

윤석열 대통령 “국경을 뛰어 넘어 문제의식에 기반한 솔루션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후, 한-아세안 시 청년 페스타 행사에서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한-아세안 공동번영에 대해 청년 혁신가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이번 AI 피칭대회 참석자이자 키즈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 중인 라데트 피도르 군은 모국인 캄보디아의 기술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을 언급하면서, 캄보디아, 나아가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달장애아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서비스 중인 두브레인 최예진 대표는 발달장애아 봉사활동을 계기로 디지털 치료기기 앱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캄보디아를 비롯해 전 세계 60만명 넘는 아이들이 앱을 사용하는데 아이들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

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음악 AI를 연구 중인 인도네시아인 아난다 판 이만 군은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에서 생성형 AI, 강화학습 등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아세안의 AI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을 매우 환영했다.

대통령은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 후,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 혁신가들을 만나니 우리의 미래가 밝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혁신에 대한 한-아세안 미래세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언,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의지를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AI를 전공하고 있는 아난다 판 이만 군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광주를 AI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면서, AI 사관학교 이외에, 현재 AI 영재고, 클라우

드 센터를 만드는 중임을 덧붙였다. 라데트 피도르 군의 기술 교육 언급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공격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직관력, 문제 발굴 능력, 창의성을 토대로, 인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어야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의 정보 접근성 확대로 인해, 과거와 달리 큰 조직 없이도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인류의 문제를 풀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글로벌 협업 측면에서, 대통령은 국경을 뛰어 넘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솔루션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세계의 AI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 스타트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3  
 경상북도건축문화상  
 배경이 되는 건축  
 대상 수상



경북도는 '2023 경상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으로 공공 및 일반부문에 총 7개 작품을 선정해 오는 10월 5일부터 포항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건축대전 개막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은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자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물 중 예술적 가치와 상징성이 뛰어난 건축물에 대해 설계자 및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작은 도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예술작품으로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지역 건축문화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작품 공모를 통해 공공 및 일반부문에 2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7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작으로 구미 소재 반도체 공장 단지 안 작은 공원을 담은 직원복지관 '배경이 되는 건축'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작으로는 자연과 가족을 감싸안은 '김천 동그란집'과 구운 대나무를 입혀 편안한 공간과 조형성을 살린 '포항 흙배랑'이 선정됐다.

우수작으로는 성주군청별관, 경주 스테이아담담, 경산 사동 하나스빌딩, 영천 삼 형제 집으로 수상작 및 공모된 작품들은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대전에 전시해 선보일 예정이다.

박동업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건축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를 짓는 건축인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북도는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해 우수한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기 RE100 실행위, 목표 달성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논의

- 민관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성과공유회 개최
-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풍력·조력 분과 추진성과 보고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집중 논의
- 경기 RE100 목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내실있게 정책 추진



경기도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성과와 애로사항,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8일 판교 경제과학진흥원 다목적홀에서 함께 열었다. 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관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태양광(영농형, 수상형, 산업단지) 분과와 풍력·조력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그간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한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직면하는 문제로는 불합리한 규제, 입지선정 문제, 인근 주민 반대 등이 있는데, 실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왔다.

주요 논의사항은 ▲기업 환경·사회·투명(ESG)경영+식량안보+농민보호 상생

모델 제시 ▲태양광설치 이격거리 규제 폐지 ▲수변 경관을 고려한 시설설치로 관광자원 활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다양화 등 기업지원 확대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의무화 등이다.

도는 성과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경기 RE100 목표인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RE100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집약된 특구 조성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입지 제한, 인·허가 문제 등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및 시군과 지속 협력하겠다"면서 "환경안정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해 경기 RE100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전남도, 유해시설 정비로 살기좋은 농촌 만든다

담양 삼만지구-해남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국비 138억 확보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공간정비사업 2023년 3차 공모에 담양 삼만지구, 해남 금호지구가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 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마을 인근의 공장, 빈집, 축사 등 유해시설을 정비해 주거·서비스·일자리 기반시설 구축 등 공간 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시행, 전남도는 10개 시군 11개 지구가 선정돼 총 사업비 1천357억 원 중 국비 678억 원을 확보했다.

담양 삼만지구는 악취로 인근 고대실마을 등 4개 마을과 산업단지에서 민원이 빈번했던 축사(계사)를 철거하고 스마트원에 체형 실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주여건 개선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따른 주민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해남 금호지구는 안전등급 D등급인 붕괴위험 폐교와 빈집 등을 철거해 귀농·귀촌 임대주택, 주민 생활 사회간접

자본(SOC)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담양 삼만지구와 해남 금호지구의 정주환경 위해요소를 철거하고 재생시설을 설치해 해당 지구가 농촌다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시군에서 농촌 공간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제27회  
**봉화송이 한약우 축제**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

2023.9.21(목)~9.24(일)  
 봉화읍 체육공원, 관내 송이산 일원

주최: 봉화군    주관: 봉화축제관광재단



#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경상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

### 경상북도 인사청문 대상기관 7개 → 11개로 확대 적용 경북도의회와 도지사 협의에 따라서 검증기관 확대 적용 가능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해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하여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중전까지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여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기존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대상기관은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다. 이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

문대상자가 가진 비전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0년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능력이 있고 경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최

### 영덕군의회 군정질문, 민생 현안 대안제시 손득수 의장, “이번 군정질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개정과 정책제안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망상 노력하겠다.”고 밝혀

영덕군의회는 지난 8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최해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규칙 5건을 심의·의결 하고 영덕군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군정질문은 민생 현안 등 군정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고 김광열 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언대에 오른 김성철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계획 추진에 따른 영덕군의 신규 원전 정책 방향과 영덕군의 늘어나는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묻고 대책을 주문했다.

김성호 의원은 각종 행사에서의 과도한 절차와 불필요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사 간소화를 위한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덕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가지 청소 전담 환경미화원 인력이 없는 이유를 묻고 이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였다.

김은희 의원은 현재 영덕군의 농·어촌 버스 운영현황과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군민과 밀접한 이장 선출 및 임명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김일규 의원은 영덕군의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원인과 현황을 묻고 농동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이상 기후에 따른 영덕군 미래 특화작물 육성 계획을 물었다. 또한 농업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배재현 의원은 영덕군 신규 천지원전 건설 후보지 유치 신청 및 천지원



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납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영덕군 경상사회복지재단 확대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영덕군의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묻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신정희 의원은 영덕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 문화관광해설사 인원 보충,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안내소 추가 설치,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지질공원 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 통합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외에도 5건의 민생과 직접 관련있는 현안에 대해 질문과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았다.

군정질문을 마친 손득수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앞으로의 영덕군정 방향을 계획하고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면서 “영덕군의회는 이번 군정질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개정과 정책제안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지역공동체 안전, 우리도 한 몫!

### 박우근 의원,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자율방범대 행·재정적 지원 강화, 상위법 설치 근거 조례 반영 자율방범대원, 전국 10만명 / 대구 3,800명 이상 활동 중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에서 지역 자율방범대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성한 자원 봉사 조직이다. 현재 전국에 10만명이 넘는 대원들이 활동 중이며, 대구에도 3,8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의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

소년선도 등 범죄 예방활동을 펼친다. 이들이 활약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그동안 자율방범대 관련법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다행히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임 부여 ▲경비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원 포상 ▲대구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우근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 지역사회의 걱정과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돼 걱정이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돼, 경찰력이 채 미치지 못하는 곳의 치안 공백을 자율방범대가 잘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시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요 현장 방문

### 감염병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인 서부산 의료원 등 주요 현장 방문 동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 점검과 소방관 노고 격려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 “공유재산 안전 심사 위한 현장 방문, 시민 안전과 복지 개선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 기반 시설 조성에 최선의 노력”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8일, 부산의 주요 기반 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살피기 위한 공유재산 현장 3곳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제316회 임시회에 접수된 공유재산 안전 심사를 위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들이다. 감염병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인 ▲ 서부산의료원 건립 현장 ▲ 노

후 건물 현대화 및 효율적 공간 확보를 위한 영선 119안전센터 재건축 대상지 ▲ 노후 소방정 대응력 향상 및 해상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정 부산 705 대대 건조 사업 현장 등을 찾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사업 현장의 여건 확인과 현지의 생생한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동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과 복구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은 “이번 공유재산 안전 심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등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포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대표발의!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사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계획 수립과 현황조사 실시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 제출 요구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여성가족재단 인건비 치중 질타

###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예산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치중되어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따르면 출연금 76억7600만원 가운데 86%가 인건비와 운영비인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다.

김영기 의원은 "고유목적사업비가 늘어나야 제대로 된 연구와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운영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재정여력이 어려워 최소한의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먼저 책정한 부분이 있다"며 "연구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편성시 각 부문별 비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 이택호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최순중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교수, 법조계에서는 이청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이은빈 법률사무소 하모니 변호사, 김범수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시민단체에서는 김희식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문은정 수원경찰서 본장이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과 남중섭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도 함께 배석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7일까지다. 염중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앞

으로 주민참여를 대폭 늘리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 3.0시대를 여는데 매진할 예정"이라며,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위촉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주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조례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이날 위촉식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김희식 위원을 선출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 이마트와 6억 규모 '신선한 식탁' 협약...취약계층에 친환경농산물 지원

### ○ 경기도-(주)이마트-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도내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전달 협약 체결

### - (주)이마트가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 지원

### ○ 김동연 지사 "취약계층에 고른 기회 제공, 친환경농산물 판매 진작, 기부문화 인식 제고, 일석삼조의 좋은 일"

경기도가 이마트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에 3년간 6억 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강희석 (주)이마트 대표이사,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경기도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신선한 식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명 '신선한 식탁' 협약은 (주)이마트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매년 2억 원씩 3년간 전달하는 총 6억 원의 기부금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해 도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취약계층에 더 고른 기회를 줄 수 있고 포용과 상생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친환경농산물 판매 진작과 기부문화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일석삼조의 좋은 일이다"라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좋은 효과 낼 수 있도록 잘 쓰겠다. 이번 협약을 인연으로 이마트, 신세계와 계속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희석 (주)이마트 대표이사는 "오늘의 이마트를 만드는 데 있어 경기도민이 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일부라도 이렇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며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되고 생산자 여러분들께도 안정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을 통해 기부된 친환경농산물은 오는 22일부터 푸드뱅크를 통해 1년간 9천 가구, 3년간 총 2만 7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받은 식품·생활용품 등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상 제공하는 나눔 사업이다. '경기도 2022년 하반기 기부식품 선호도 조사'에서 푸드뱅크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 신선 농산물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지원하는 농산물은 도내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제공할 예정으로,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소와 도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1개 광역지원센터와 83개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구성된 푸드뱅크 체계를 활용해 지난 한 해 동안 생활이 어려운 도민 5만 2천여 명과 복지관등 1,600여 개소에 684억 원 규모의 기부식품을 지원했으며,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품, 생활용품 등 기부식품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기초사업장·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추천받을 수 있으며 시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노동존중 경기도를 위한 노사민정 활성화 정책토론회 진행

### 경기도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토론자들 열띤 토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노동 존중의 정책을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다가올 정의로운 시대전환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대화의 주체로서 경기도의 고용정책과 사회적대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화합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를 정착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염중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사민정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근본적인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며,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위한 소중한 정책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토론회를 축하했다.

이어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경기도의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무국 전담 인력 확보, 사무국 운영 방식

변화 모색, 거버넌스·컨트를 타워 역할 강화, 기초 지자체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은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기반 조성과 광역 협의회로서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구심 역할 강화를 정책에 담는 것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고

육국장은 경기도형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김진우 사무국장은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노동 관련 논의의 장 역할을 강화할 것,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심의 권한 등을 적극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국과 소관 상임위를 통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 안양시 호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어르신들과 힐링 나들이

안양시 호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부도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 위원들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비로 진행됐으며, 저소득 어르신 16명과 협의체 위원 등 봉사자 14명이 짝을 이뤄 힐링 여행에 나섰다.

제부도 바닷가에서 산책을 즐긴 후 케이블카 탑승 및 색소폰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무더운 여름내 지쳤던 시간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들이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

만에 바닷바람을 쐬니 정말 기분이 상쾌하다"며 "처음에는 참여를 망설였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다음 만남도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동운 위원장은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잠시나마 좋은 추억을 선물해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태종 호계3동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이번 행사에 몰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호계3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 안산시,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민안전 최우선

#### 안산 대부포도축제 등 9월 축제·행사 5건 안전대책 등 논의

안산시는 이달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행사 5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안산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와 행사 주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안산 대부포도축제 ▲제7회 대부해솔길 in 서해랑길 걷기축제 ▲2023 안산마라톤대회 ▲2023년 안산사이언스벨리 과학축제 ▲제37회 별망성예술제 등 총 5개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 등을 안전점검 실시 전까지 보완토록하고 축제 개최 전 시설물, 전기, 소방, 가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덕주 행정안전국장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안산 대부포도축제'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부포도항기타테마파크 일원에서 대부포도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체험이벤트,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행사로 진행되며, 이와 함께 16일에는 '제7회 대부해솔길 in 서해랑길 걷기축제', 17일에는 '2023 안산마라톤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연계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안산사이언스벨리 과학축제'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일대에서, '제37회 별망성예술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선부광장 일원에서 공연, 미술실기대회, 미술전, 시화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최정무/기자



## 수원 화서시장에 2번째 아케이드 설치

### 화서시장 아케이드 2구간 준공식

지난 2019년 완공된 수원 화서시장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 1구간을 이어주는 2구간이 완공됐다. 화서시장 상인회는 8일 화서시장 아케이드 2구간 입구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화서시장 가나 동 구간에 길이 100m, 폭 14m 규모의 1구간 아케이드를 설치했다. 이번에 완공된 2구간 아케이드는 팔달로107번길에 길이 180m, 폭 9~11m 규모로 지어졌다. 동말로48번길과 팔달로107번길이 만나는 길부터 1구간 아케이드 입구까지를 연결한다.

2구간 아케이드에 대한 설치 사업은 2021년 3월 계획을 수립하며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가 철거를 시작했다. 11월 기초터파기, 지중 구조물 확인 등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지난 8월 말 공사를 완료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국미순·김미경 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기배 발달구청장, 김호겸 경기도의원, 화서시장 이영수 상인회장·상인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화서시장 상인회는 이재준 시장, 김기정 의장, 김영진 국회의원, 김호겸 도의원, 국미순·김미경 시의원 등 6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화서시장은 아케이드 설치가 어느 곳보다 절실했던 곳"이라며 "아케이드와 더불어 시장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도 생겨 접근성도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계절 든든한 아케이드처럼, 늘 상인들을 웃게 하는 든든한 수원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경기FTA통상진흥센터, 업무협약 체결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수출 저변 확대 협력 약속



화성시가 8일 경기FTA(자유무역협정)통상진흥센터와 '화성시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강경식 경기FTA통상진흥센터장 등이 참석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수출 저변 확대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화성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FTA·통상교육 및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탄소국경세 등 통상사업 지원 △수출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수출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경기도 내 수출 규모 1위 도시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 체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화성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통해 수출물류비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관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 추석맞이 유튜브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

### 9월 12일 '유튜브 쇼핑라이브'에서 쿠키, 단백질환, 비누, 꿀, 가방, 김치 등 판매

추석을 맞아 고양특례시가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와 함께 '고양시 사회적경제 가치살림'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판매는 9월 12일 유튜브 쇼핑라이브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가치살림'은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홍보관 '가치살'을 온라인으로 옮겨 온 상품이다.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은 안정적인 판

로를 확보할 수 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 6개사는 추석맞이 실속 있는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워킹쿠키의 우리밀쿠키 세트 ▶(주)곤충킹의 고단백 단백질환 품이 환 ▶사회적협동조합 다시시작의 연꽃 비누, 연잎 샴푸 세트 ▶농업법인 (주)온스의 꿀 제품 ▶투비협동조합의 사이잘 가방 ▶농업법인 워드퍼머스의 김치 3종 세트 등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9월 11일까

지 사전 신청을 마치면 커피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유튜브에서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검색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가치마켓' 등을 운영해 고양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시민들에게 널리 선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덕양구청 가로수길에서 열린 가치마켓은 9월(21일~22일)과 10월(19일~20일)에도 각각 '추석 선물 찾기'와 '환경 찾기'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 성남시, SRT 고속철도 터널 화재 사고 대응 훈련 실시

### 8일 새벽2시 여수동 율현터널에서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

성남시는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주)SR과 합동으로 9월 8일(금) 새벽 2시에 '고속철도 터널 화재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고속철도 터널 화재 사고 대응 훈련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대응 태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SRT 고속철도 율현터널(중원구 여수동 소재) 5km 지점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지하 터널에서 지상까지 승객들을 신속히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 대피, 이송, 사상자 지원'

과정으로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 행정안전부, (주)SR과 중원경찰서, 성남소방서, 분당서울대병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들은 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대응기관 간 협업체계→위기대응기구의 적절한 가동' 등을 중점 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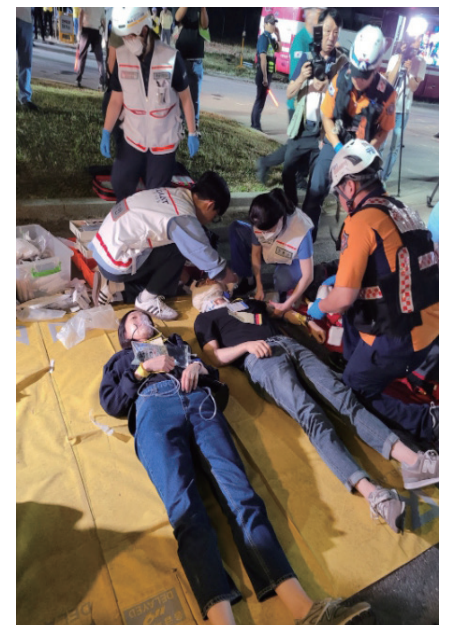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골든타임 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

기대응 태세 확립 훈련이다.

이번 화재 사고 대응 훈련이 이루어진 율현터널은 SRT 평택-동탄-용인-성남-수서를 잇는 평균 길이 50m의 총 연장 50.3km 최장 터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전과 같은 재난 훈련으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공동주택에서 소형 폐가전 하나만 나와도 무상 수거

## 이상일 시장, E-순환거버넌스 정덕기 이사장과 협약

용인특례시에서 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기가 쉬워진다. 용인특례시는 8일 이상일 시장이 접견실에서 폐가전제품 수집·운반기관인 E-순환거버넌스 정덕기 이사장과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폐가전 재활용은 자원순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협약에 따라 용인의 공동주택에서는 소형 폐가전이 하나만 나와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되면서 용인은 한층 더 원활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E-순환거버넌스가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함께 배출해야

무상으로 수거했다. 이번 협약은 계기로 시험사업 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 거주자는 개수 제한 없이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용인특례시에서 소형 폐가전을 개수 제한 없이 수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원순환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른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에 소형 폐가전을 버리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자원순환은 한층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E-순환거버넌스의 수거 대상 품목은 냉장고, TV, 헤어드라이기, 전자기, 다리미, 밥솥 등 모든 폐가전이다. 폐가구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가운데)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오른쪽)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왼쪽)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오른쪽)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가운데)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오른쪽)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가운데)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오른쪽)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IFEZ 김진용 청장, 취임 1년...세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도약에 크게 기여

## 김진용 청장 “IFEZ 20년 성과 갈무리해 새로운 20년 설계에 전력 투구”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5대에 이어 지난해 9월 7대 청장으로 취임한 그는 첫 재임 청장으로 1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시키고 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등 IFEZ를 세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소통의 모형을 제시했고,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IFEZ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고 또한 IFEZ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고민한 1년이었던 것이 주위의 평가다. 최근 IFEZ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FEZ)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투자유치·혁신성장 등에서 IFEZ가 많은 성과를 거둬 우리나라 FEZ를 선도하고 있는 것을 인정받은 결과다.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지난 5대 청장 재임시 송도 11공구 개발과 관련해 바이오-메디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공동 주택 용지를 과감히 줄여 바이오 산업용지 30만평을 확보하고 연구개발(R&D) 시설 용지를 지정하는 등 현재 송도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허브로 도약하는데 기틀을 마련한 김진용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송도의 바이오 허브 도약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독일 글로벌 바이오기업 싸토리우스와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제조·연구시설 건립 관련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와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R&D센터 착공, 송도 11공구 산업시설용지 내 30억 달러 규모의 롯데바이오로직스 매가 플랜트 유치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빅3 바이오 기업’과 롯데바이오로직스까지 송도에 유치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그림이 완성됐다. 800병상 규모로,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송도세브란스병원도 지난해 말 착공됐다. 그밖에 전국 최초 인공지능(AI)-메타버스 교육센터 조성, 에디스 교육과학 박물관과 유현준 테라스타운 조성도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개통과 함께 송도가 가진 해양잠재력을 활용해 차별화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줄 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준공에 이어 1-2단계 시작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는 게임산업의 실리컨밸리로 거듭나게 할 ‘청라 G-Tech City’ 조성 사업 등의 계획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차세대 스포츠·문화·엔터테인먼트 복합 공간인 멀티스타디움(돔구장)과 복합 쇼핑몰이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랜드마크로 건립되는 스타필드청라 등 굵직굵직한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청라에는 신규 BMW 연구개발(R&D) 센터와 코스트코 청라점도 착공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에 첨

단복합항공단지(MRO) 용지를 확보한 것을 비롯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엔터테인먼트인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의 정상 추진, 골든테라시티 내 국제학교 추가 유치 본격화 등도 큰 성과다. 이와함께 오랫동안 묵은 현안들에 대한 매듭을 지으며 IFEZ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지난 12년 동안 지연돼온 송도 이랜드 개발 사업과 오랜 기간 현안이었던 송도 6·8공구 개발 등이 협약 등을 통해 해결됐다. 이랜드 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연되어 오다 12년 만에 본격화된 것이며 6·8공구 개발은 지난 2007년 송도랜드마크시티(SLC) 사업협약 기점으로 16년, 지난 2017년 (주)블루코어PF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지 6년째 장기 지연된 묵은 현안이다. 청라시티타워 문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민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했던 기존의 사업 방식을 변경, 청라시티타워의 사업 주체인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청에서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아울러, 김청장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다. 지난 5월 IFEZ ‘교통 테크포스’를 구성해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또한 시민들의 교통불편 사항등을 현장에서 확인 할 뿐 아니라 이를 반영해 발 빠르게 예산을 반영, 9월부터 M6405 광역버스 운영을 출퇴근시간에 1일 8편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에 나섰다. 김진용 청장은 ‘7대 미래 비전’을 제시해 지난 2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또 다른 IFEZ 20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 한 바 있으며 이와관련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국제금융도시 △제4차 산업혁명 기업 도시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 △미래 스마트시티 △K-콘텐츠 도시 △관광-레저 허브도시 등의 조성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미래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계적인 자유로이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 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제2스타트업파크 조성을 바탕으로 IT(정보기술), BT(바이오 기술), ST(항공기술), CT(문화기술) 등 인바 6T가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ST(항공기술)는 인천이 최초의 로켓발사 지역이라는 역사와 함께 항공 관련기술발전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K-바이오 육성을 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시 조성, K-콘텐츠의 생산기지’로의 도약도 미래 비전에 포함됐다. 김청장은 “IFEZ를 아끼고 지지하는 많은 분들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주민속원과 IFEZ 현안 해결에 진력했고 IFEZ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과 성을 다한 1년이였다. 또한 미래 먹거리 모색에 치열하게 고민한 1년이였다”며 “지난 1년이 IFEZ 20년 성과를 갈무리하는 시기였다면 남은 기간은 IFEZ의 향후 새로운 2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인천이 싱가포르와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데 IFEZ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준남/기자

# 광명시 청년동, '청년 예술가들이 만든 즐거운 예술 난장' 청년예술주간 '첫' 개최



광명시 청년동은 오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광명청년예술주간 '첫'을 개최한다. 광명청년예술주간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청년 문화예술창작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첫'의 결과물을 최종 발표하는 자리이자 청년 예술가들이 꾸리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청년 문화예술창작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첫'은 유다원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공동대표가 총괄 멘토로 참여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자신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해 제작, 발표까지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 예술가 5개 팀은 이번 청년예술주간 '첫'에서 영화 상영회, 반려동물 음악 피크닉, 연극, 현대무용,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전시 등 팀별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지역에서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서 만날 수 있도록 청년동뿐만 아니라 광명시평생학습원, 지역 카페, 광명시민체육관 등에서 진행한다.

전체 프로그램은 ▲영화 상영회 '구제' ▲반려동물 동반 음악 공연 '그르릉 피크닉'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모순' ▲무용 '소리수집가-첵터1 기억소리'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전시 "'도이를 찾습니다' 그림책 사진전!'으로 구성됐다. 영화 상영회 '구제'는 오는 16일과 17일 2회 열리며 현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구제'이자 '재앙'을 받는 내용의 영화 '구제'를 비롯해 청년 감독들의 영화를 함께 소개하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16일에 열리는 반려동물 음악 피크닉 '그르릉 피크닉'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음악공연과 인식이표 만들기, 발바닥 도장 찍기 등 체험까지 즐거운 반려동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로미오가 모순 코미디언으로, 줄리엣이 쿼어 페미니스트 플랜서로 등장하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모순'은 15일과 16일 2회 공연한다. 그 밖에 소리의 질감과 정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현대무용 공연 '소리수집가-첵터1 기억소리'는 10일, 인형 무무의 주인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담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전시 "'도이를 찾습니다' 그림책 사진전!'은 16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16일에는 청년 예술가들의 공연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 곳곳에서 이루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재원 청년동 센터장은 “이번 청년예술주간을 통해 광명시 청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접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년 예술가들이 앞으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 부천시, 스마트 복지·안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나서

## 대민 행정서비스 최일선 공무원 대상 복지·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 진행

부천시는 지난 9월 6일 부천아트센터 B39에서 부천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추진 담당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 복지·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재난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천형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동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업 방향을 고민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복지 분야 교육은 양미나 오정 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이 '스마트 기술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및 사회적 고립 해결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 하며 복지 서비스 최일선에서 일하는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SOS 컨설팅 김중도 대표는 '일상 생활 속 재난·안전 대처'를 주제로 동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사각지대 발굴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은 부천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이 일상화되게 하는 열쇠”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교육과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부천형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사업)과 '3개 구 및 일반동'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정보기술(IT)과 지역사회 연계를 토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 “광주시문화재단, '제28회 남한산성문화제' 개최한다”

## 5년 만에 열리는 지역 대표 축제, 9월 15일~17일 3일간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개최



(재)광주시문화재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역사를 알리는 '제28회 남한산성문화제'를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 3일간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남한산성의 낮과 밤을 주제로 주간에는 스승열전 제왕의식 △산성(희) 콘서트 △남한산성 놀이 △수어청 무예이야기 △남한산성 대동굿 등 전통을 담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야간에는 △산성콘서트 △별빛 총총 산성야행 △남한산성(라이팅쇼) 등 현대 문화와 접목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9월 15일 열리는 개막식은 120명 규모의 대형 퍼레이드와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 개최 영원을 담은 '산성(희)콘서트'가 진행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 김덕수와 남상일, 설운도 등이 출연하

여 즐거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남한산성 놀이패 공연은 광주의 설화와 전래동화를 소재로 하여 마당극, 인형극, 마술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야간 프로그램인 '별빛 총총 산성야행'은 '인화관-행궁-북문-서문-수어장대' 코스를 전문 해설사, 배우와 함께 걸으면서 남한산성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작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3일까지 사전 신청 및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규모 민속촌 '조선형 테마파크, 남한산성 빌리지'에서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남한산성 주민회와 상인회가 준비한 저자거리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남

한산성 무예도보통지, 광지원 농악단, 남한산성 취타대 등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재)광주시문화재단 축제 관계자는 “5년 만에 개최되는 광주시 대표 축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깃든 남한산성에 방문하여 축제와 함께 즐거운 가을 밤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 경북도, 디지털 인프라 산업 지방시대를 주도한다!

### 국내 최초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유치 가장 빠르게! 더 경쟁력 있게!! 경북 포항, 동북아 데이터센터 중심지로 도약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자산운용 1조5천2백억 원 대규모 투자키로



경북 포항에 국내 최초로 '육양국(국제 해저광케이블을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설)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시,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 자산운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은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태욱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심장석 DCT텔레콤 대표이사, 김형운 KB자산운용 대체투자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SK에코플랜트와 DCT텔레콤·KB 자산운용은 경북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1조 5천2백억 원을 투자해 30MW 데이터센터 4개동과 국제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을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 특징은 국가 간 통신의 99%

를 처리하는 국제 해저광케이블 기지인 육양국과 연계한 더욱 빠르고 저렴한 국제통신망을 이용해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집적되는 점으로, 싱가포르·일본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산업 모델이다.

포항에 투자되는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인프라 동북아시아 국제통신망의 주요 거점 역할과 함께, 수도권과 부산 중심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확대로 빅데이터 산업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의 국내 수요기업과 인력 등이 집중된 수도권 쏠림현상('22. 9월 기준 운영 147개 중 수도권 87개(59.2%), (2032년 까지 수요) 1,224개 중 수도권 925개(75.6%))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전역난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 분산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경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망

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데이터센터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 여전히 데이터센터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고객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데이터센터는 유치 후에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와 포항시는 지난 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기업 및 관련 기관과 함께 34회에 걸친 맞춤형 지원 TF를 운영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해왔다.

이날 협약에서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력 공급 및 인·허가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고, SK에코플랜트는 투자 협의의 중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공동 운영한다. 육양국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OTT 사업자-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캠퍼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DCT텔레콤은 포항과 일본 후쿠오카 330km 구간을 연결하는 최신 국제 해저 광케이블망 구축으로 부산과 경남에 집중된 국제 해저 통신망을 다원화하고 앞으로 미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으로 국제통신망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송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전송 품질을 높여 기간통신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를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KB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 국제 광케이블, 통신 타워 등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디지털 인프라 펀드를 조성 중으로 이번 DCT텔레콤의 해저광케이블/육양국 투자로 국내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육양국을 통한 최신 국제 통신 인프라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포항이 동북아 디지털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는 "SK에코플랜트는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지난 2021년 사명을 변경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ESG 경영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포항에 투자하는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모델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포항에 조성될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지원 정책'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착공을 앞둔 경북도청 신도시 KT 공공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이어, 포항에 대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들어서면 경북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경북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예천군 국민체육센터 주민들에게 '큰 호응'

###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제공 이용객 꾸준히 증가... 지역주민 등 하루 150여 명 이용

예천군에서는 100세 시대 건강한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청 옆에 자리한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9,659㎡ 규모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게이트볼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및 배드민턴장 등을 갖추고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9년 3월 개관해 올해로 5년째며,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 하루 평균 150여 명이 이용 중이다.

1층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실내에서 게이트볼을 즐기며 계절에 상관없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같은 층 헬스장은 20종 36개의 운동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2층 배드민턴장에서는 배드민턴, 피클볼 등 동호인들이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특히, 다목적체육관과 배드민턴 경기장은 일반 군민들이 체육행사 등을 위해 무료로 대관을 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군은 실내체육관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활용했던 '게이트볼 1구장'을 소규모 실내체육관으로 리모델링 한 후 군민들이 체육활동 즐기고 각종 단체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체육사업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히 운영하고 더 좋은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해 군민들의 체육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한울본부,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장려 캠페인 참여

### 이세용 본부장,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 지명해 이세용 본부장, "우리 수산물 소비 확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 위해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바라며 한울본부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속 힘쓰겠다"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6일,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은 국민들의 어촌 방문을 장려하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이 기획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참여한 이세용 본부장은 "우리 수산물 소비 확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한울본부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세용 본부장은 다음 참여자로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을 지목했다.

한편, 한울본부 관계 직원들은 중식을 수산물 축진을 위해 횃집을 방문, 식사하는 등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보이며 등 '말보다 실천'을 몸소 실행하였다.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지역과 상생하며 '안전한 원자력, 공존의 공동체 한울본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은 물론, 수산물 소비 및 축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여서 참으로 희망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윤근수/기자



#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 개최

### 안병윤 행정부시장 "참석 국내·외 금융·투자 관계자들과 교류망 구축, 부산금융 중심지 경쟁력 상승으로 부산이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

**PROGRAM**

**INVEST K-FINANCE: LONDON IR 2023**

Welcome to INVEST K-FINANCE: LONDON IR 2023. This event will serve as a comprehensive opportunity for you to learn about global strategies and collaboration approaches of K-Finance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Korea.

**When** 10:00AM - 1:30PM, Wednesday, September 13, 2023

**Where** Westbourne Suite, Royal Lancaster London

**Key Speakers** Governor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Vice Mayors of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Deputy CEO of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IC), CEOs of Major Korean Financial Companies

**Prepared b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N Re, MIRAE ASSET, NH투자증권, Samsung Life Insurance, Shinhan Financial Group, Woori Financial Group

**In collaboration with** Morgan Stanley

세계 금융·투자기관이 밀집해 있는 국제금융의 중심지 영국 런던에서 우수한 금융 기반시설(인프라)을 가진 '부산금융'을 홍보한다.

부산시는 현지시각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영국 로열 랭커스터 런던 호텔에서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한국 금융산업의 국

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 금융중심지인 부산시와 서울시, 그리고 6개 금융회사가 최초로 협업을 개최하는 대규모 투자설명회이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금융감독원장, 부산 행정부시장, 서울 정무부시장, 6개 금융사 대표단(신한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미래에셋증권 회장,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삼성생명 사장, 코리안

리 대표이사), 주영국한국대사, 영국 외무부 부장관, 주한영국대사, 한국투자공사 본부장,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해외 투자회사 임직원, 투자자 등 230명 내외가 참석한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주최 기관들은 영국 정부 관계자, 해외투자자 등 대상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강점과 투자 매력, 그리고 한국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서울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금융도시인 영국 런던에는 각국의 금융기관들과 투자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이번 투자설명회로 인한 투자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영국 정부 관계자, 해외투자자에게 한국의 금융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 관문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는 부산의 우수한 금융기반시설(인프라)과 디지털 금융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 진출·투자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부산에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 기업을 적극 소개하는 등 부산금융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의 활로를 모색한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 성공한 디지털금융 기업이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부산 디지털금융 기업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도 이날 투자설명회에 참가해 영국 금융전문기관이자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주관하는 지엔사(Z/Yen)와 공동 연구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핀테크 등 금융상품의 융합 가능 범위에 대해 지엔사와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마이넬리 런던 금융특구 시장 당선자, 영국의 핀테크 육성기관 레벨39(Level39)의 관계자 등과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들과 전략적 관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런던 금융특구 시장 당선자 마이클 마이넬리\*와는 영국 국제 금융중심지의 강화전략과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논의한다.

영국의 핀테크 육성기관 레벨39(Level39)의 관계자와는 기업육성, 효율적 지원을 논의하며 전략적 관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투자설명회는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부산금융'을 전 세계 해외투자자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다"라며, "참석 국내·외 금융·투자 관계자들과 교류망(네트워킹)을 구축해 부산금융중심지 경쟁력을 크게 상승시켜 부산이 세계적(글로벌) 금융중심지(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GB(경북)대학사회봉사단 & 자연보호협의회 동행, 동해안 비치코밍 봉사활동 나서

### 휴가철 쓰레기로 몸살 앓는 동해안 치유, 다시 찾고 싶은 바다로!

경북도는 지난 8일, 휴가철이 지난 동해안을 다시 정화하고 내년에도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동해안을 만들고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4개 해안에 대한 '동해안 1300리 비치코밍' 활동에 나섰다.

비치코밍은 Beach(해변)와 combing(빗질하다)의 합성어로 해변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해변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경북도는 지역 대학생이 중심이 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GB대학사회봉사단을 조직하고 지역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비치코밍이라는 이름의 해변 환경정화 활동을 지금까지 세 차례 추진했다. 비치코밍을 통해 3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이전보다 깨끗해진 동해안의 이미지로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년보다 27.6% 증가하는 효과도 가져다줬다.

이날 행사는 포항·영덕·울진 4개 해변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도내 15개 전문대학교 학생 460여 명으로 구성된 GB대학사회봉사단과 자연보호협의회 등 여러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휴가철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동해안을 만들고, 이번 활동에서도 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와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포



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2023년 비치코밍 활동에 대해 지역 청년의 자원봉사와 환경보호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상북도 자원봉사 참여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됐다

고 평가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5월 GB(경북)대학봉사단 공식 출범 이후 동해안 일대를 정화하는 비치코밍 활동과 의료봉사 등 지역 청년들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힘모아 나서기로!

### 9. 7.(목) 15:00 도매시장 이전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 겸 설명회 개최 유통관계자 등 시설행태와 사업 공모 신청에 힘 모으기로! 안중근 경제국장, "도매시장 이전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유통종사자의 협력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히

대구광역시시는 지난 7일(목) 오후 3시, 대구도매시장관리사무소 5층 대회의실에서 유통종사자 100여 명 및 관련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매시장 이전지로 결정된 달성군 하빈면에 건설될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연합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시설행태의 설명과 더불어 도매시장 시설행태와 사업추진에 따른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의 중간보고회를 겸해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의 인사말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경철 수석연구원의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명, 그리고 설명회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참석한 유통종사자들은 법인별 별도 공간 분리, 무·배추·양파 등 부피 큰 품목의 별도 경매 경장 마련, 경매장과 잔품처리장 공간의 별도 분리, 잔품처리장 면적 확대, 가공처리장 별도 공간 확보 등 다양한 제안 및 의견을 냈고,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용역안에 최대

한 반영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도매시장 시설행태와 사업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모인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은 도매시장 이전에 대하여 조속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설행태와 사업에 공모가 선정돼 추진되길 희망했으며, 앞으로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지난 상반기는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연합회 대표 18개 단체(13개 법인, 5개 중도매인 연합회) 전원이 도매시장 이전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는 지난 3월 북구의 팔달지구와 달성군의 하빈면 대평지구 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가 최종 이전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대구시는 2032년까지 도매시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도매시장 이전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유통종사자의 협력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유통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윤경희 청송군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 참석

### 윤경희 청송군수, "이번 총회를 통해 습득한 우수 사례를 군에 적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글로벌 생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간 현안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일, 제10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총회에 참석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는 지질공원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격년으로 개최되며, 이번 총회는 '전통, 지역경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주제로 모로코 마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M'GOUN UNESCO Global Geopark)에서 열렸다.

총회에는 총 48개국 195개 세계지질공원과 국내외의 세계지질공원 추진 지자체에서 80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국내에서는 청송, 제주, 무등산 등의 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사무국,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청송군은 지질공원 홍보부스 운영, 주제 발표(지질공원 대중화를 위한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교육 프로그램)를 통해 청송의 관광자원과 지질공원 운영노력을 홍보했으며, 세계지질공원 운영에 필요한 각국의 지질공원 교육관광 프로그램, 인프라,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에 대한 벤치마킹에 주력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습득한 우수 사례들을 청송군에 적용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글로벌 생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금정구 - (주)푸드트래블' 금사 푸드엔파크 창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 금정구 관계자,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발전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상호협력해, 지역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큰 성과 창출이 있길 기대해"



부산시 금정구는 2024년 1월 개소 예정인 금사 푸드엔파크 창업지원 시설의 입주자로 최종 선정된 (주)푸드트래블과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공사 진행 중인 금사 푸드엔파크 창업지원 시설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청춘과 정든 마을 부산 금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금사 푸드엔파크 창업지원 시설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푸드트래블(대표 박상화)은 소상공인 푸드트럭 공유주방 사업을 진행하여 예비 푸드트럭 사업자들을 모집,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기관 간 발전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상호협력하여 지역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큰 성과 창출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 박창석 의원, 군위군 신공항연결 도로망 구축, 동물화장장 개설, 항공특성화고 전환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

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은 6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위군 신공항연결 도로망 구축, 동물화장장 개설, 항공특성화고 전환이 조속히 재검토돼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과 신공항과 연결된 도로망 구축을 촉구한다.

박창석 의원은 대구가 3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박 의원은 먼저, 신공항 조기 건설과 신공항연결 도로망에 대해 '신공항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출자법인(SPC) 설립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하고, 서군위IC 연결 도로망 개설, 팔공산 관동도로와 군위군 관동도로의 연결여부, 공항 개항 전 군위군 관동도로의 건설 가능성 등 신공항연결 도로망 구축과 대구시의 국지도와 지방도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와 관련해 질문한다.

이어 박창석 의원은 대구시가 지역 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동물화장장을 건

립해야 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민간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구시의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박 의원은 "군위 효령고의 항공특성화고 전환 사업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군 학령인구 부족과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항공고와의 중복투자를 이유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효령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항공특성화고이며, 이제 관할 교육청이 경북도가 아니라 대구시교육

청으로 중복투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효령고는 학교 인근 공항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훌륭한 환경적 우위를 바탕으로 항공분야 명문고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을 강조하며, 대구시교육청에 본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근수/기자

# 월드컵 레전드와 함께한 '2023 영덕 풋볼페스타' 성료

### 하상목 영덕군축구협회장, "영덕군 군기이자 이전 어엿한 대한민국 축구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

지역 축구 활성화와 유망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2023 영덕 풋볼페스타'가 지난 7일, 대한민국 월드컵 국가대표들로 구성된 월드컵레전드 FC와의 자선경기를 끝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축구 전문지 베스트일레븐이 주최하고, 영덕군축구협회와 축구사랑나눔재단, 베스트일레븐이 주관했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1,000여 명이 몰려 성사를 이뤘다.

특히, 1986~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로 이뤄진 월드컵레전드FC의 김주성 대표와 선수 21명

이 김광열 영덕군수, 손득수 영덕군청, 김서규 영덕군체육회장, 하상목 영덕군축구협회장 등 축구를 사랑하는 영덕군민으로 구성된 팀과 자선경기를 치렀으며, 이렇게 마련된 성금은 지역 초·중등 축구부와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전달했다.

또, 강구초·중등 축구부 대상, 축구클리닉, 레전드 팬사인회, 축구수집기 이재형 씨의 축구 역사·유물 전시회, 유니폼 및 사인볼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졌다.

월드컵레전드FC 김주성 대표는 "영덕군민께서 이렇게 축구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지 몰랐다"고 놀라워하며, "상황리에 치러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영덕군을 비롯한 전 국민께서 더욱 축구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상목 영덕군축구협회장은 "많은 분이 월드컵 신화의 주역들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즐기며 삼 한편에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영덕군의 군기이자 이제는 어엿한 대한민국 축구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내가 찍은 사진, NFT로 만들어 드려요!

### 경북도 NFT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9.11~10.31까지 접수 총 상금 1,800만 원, 입상작은 NFT 제작을 위한 교육도 지원

경북도는 NFT(Non-Fungible Token : 불분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으로,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됨.)에 대한 법적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NFT 관광사진 공모전'을 9월 1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이행 과제 일환으로 NFT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창작자들이 개발·발굴한 창작물이 NFT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가올 디지털 세상에서 사진, 미술품 등 기존 예술품이 NFT와 결합해 희소성과 디지털 소유권을 인정받고, 이 가치에 기반해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진행하게 됐다.

공모 주제는 "경상북도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주제"이며,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응모 자격은 제한 없이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제출된 작품은 목적성, 독창성, 작품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예비심사, 2차 본심사 후 최종 대상(1명, 300만원), 최우수상(2명, 각 200만원), 우수상(3명, 각 200만원)을 포함해 전체 32명을 선정한다.

상금은 총 1,800만원 규모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금 중 일부는 출품 사진 배경 지역의 지역화폐(우수상 이상, 상금의 1/3범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상작 출품자를 대상으로 NFT 제작 교육 및 NFT 거래소 등록 수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오는 11~12월 중 입상 사진과 제작된 NFT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전시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며, 오프라인 전시는 양재 aT센터에서 한국사진축전의 일환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는 뉴욕을 기반으로 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스페셜(https://www.spatial.io : 사진 전시를 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 학과장은 "디지털 자산이 가지는 미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NFT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존 예술가들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NFT 관광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및 공모전 운영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3. 9.11. ~ 10.31.**

**공모 부문**

구분	대상(개별)	드론	스마트폰
총액	JPG파일(가로) 4000x3000px 이하의 사진(1인칭/2인칭)	JPG파일(가로) 4000x3000px 이하의 사진(1인칭/2인칭)	JPG파일(가로) 4000x3000px 이하의 사진(1인칭/2인칭)
출품규격	다중촬영, 드론, 스마트폰 1인칭 이내		

**공모기간**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상** 2023년 11월 이후 편입된 지역별 주민등록번호 14자리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주민(19세 이상)이며, 주민등록번호 14자리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주민(19세 이상)은 별도 신청서 제출 필요

**공모 주제** 경상북도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주제

**공모 대상** 자격제한 없음 (내국인 모두 참여 가능, 개인 단위로 접수)

**출품비 없음** \*11월 5일 종료 시, 출품비 무료 \*본인이 보유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NFT 제작하여 오픈Sea(OpenSea) 등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접수방법** 경상북도 NFT 관광사진 공모전(gbnftphoto.co.kr) 검색 후 온라인 접수

**입상작 예** NFT 거래소 등록, 국제 청년 메타버스 컨퍼런스 전시, 메타버스 플랫폼(OpenSea) 전시 및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문의 및 안내** e-mail: gbnftphoto@gmail.com | Tel: 02-579-2220 |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부산시, 제30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 개최

### 박형준 부산시장, "앞으로도 복지종사자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부산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시 민공원 야외무대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수상자, 복지시설종사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24회 사회복지의 날(9.7.)'과 '제30회 부산복지의 달(9월)'을 기념하고자 마련됐으며,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날 유공자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장관 표창) 7명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유공(장관 표창) 2명 ▶사회공헌장(시장 표창) 6명 ▶제30회 부산사회복지의 달 기념(시장 표창) 25명 ▶이웃돕기 유공(시장 표창) 4명 등 총 50명이 선정됐다. 시는 사회복지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였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로, 지난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지난 7월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고 이듬해인 2000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해 올해 24회째를 맞았다.

시는 정부보다 앞선 1994년부터 9월을 '부산복지의 달'로 지정하고 30회째 기념식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는 사회복지의 날도 함께 기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복지의 달 30주년을 기념, 매년 11월 개최해오던 '051영화제(부산복지영화제)',를 지난 8~9일까지 양일간, 부산시민공원에서 선보인다. 051영화 수상작과 15분 복지 도시 테마로 구성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051영화란 부산의 지역번호 051을 담은 부산의 사회복지영화로, 이와 관련한 영상을 시민이 직접 51초 또는 5분 1초 길이로 제작한 것이다.

체험 부스는 ▲점성술 관련 부스(보행, 건강/돌봄, 일자리) ▲연대성 관련 부스(주거, 공동체, 교육/문화), ▲생태성 관련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엇보다 가장 선두에서 '복지 도시 부산', '따뜻한 공동체 부산'을 만들고 계시는 모든 사회복지 관계자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우리 사회의 최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복지 종사자들이 더 큰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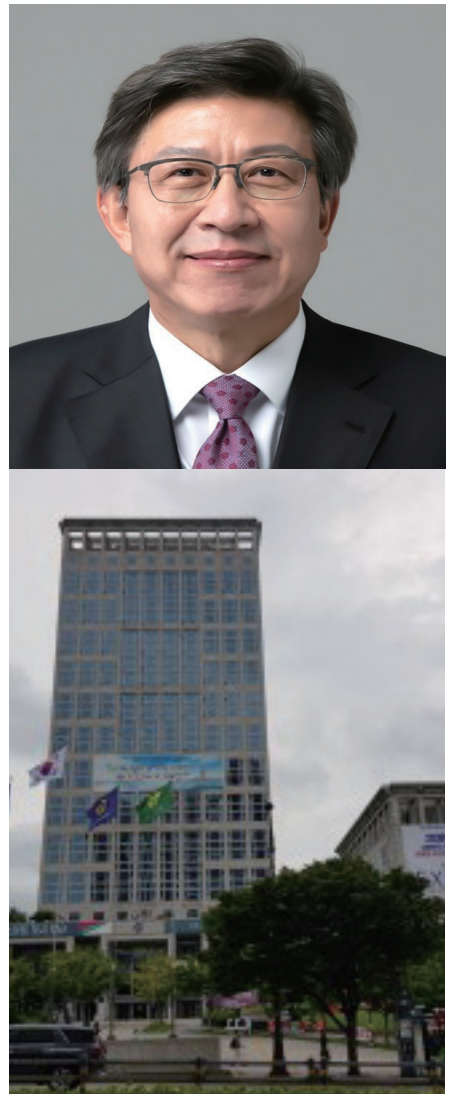
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건강하고 균형 잡힌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여 행복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원·팀(One-Team)이 돼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누리는 부산 복지를 목표로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부산형 사회서비스 혁신기반 마련과 복지돌봄서비스의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사회서비스원을 개원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달 사회복지 관련 단체·기관을 집적해 상호 협업을 통한 상승효과를 구현하고, 복지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개소했으며, 지난 8월에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최로 장애인국제제천인 2023 부산세계장애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난 5월에는 전국 최초 부산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를 개통하는 등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 대구 달서와 함께 드론에 꿈을 심고 비상하자!

## 2023 달서 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대구 달서구는 10월 14일 월배국민체육센터(축구장)에서 개최하는 '2023 달서 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 참가자를 10월 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구직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드론 꿈나무들에게 드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해당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생까지 참가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

대회는 미니드론 장애물 레이싱 경기로 진행되며 초등부 및 중·고등부 두 부문으로 나뉘, 각 조별로 예선을 치르고 조별 5명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예정돼 있다.

부문별로 대상(1명, 특허청장상) 수상

자에게는 상금 70만원, 금상(1명, 달서구청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 은상(2명,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만원, 동상(3명, 대구상공회의소회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달서구 홈페이지(https://www.daeseo.daegu.kr)에서 경기규정 등 대회 세부 내용을 확인 후 10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드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품고 힘차게 비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달서와 함께 드론에 꿈을 심고 비상하자!**

**2023 달서 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

2023. 10. 14. (토) 10:00~16:30  
월배국민체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광명남로 70)

**접수기간** 2023. 8. 25. (금)~10. 4. (수)

**모집인원** 200명 정도(초등부 100명, 중·고등부 100명)

**접수방법** 달서구 홈페이지(daeseo.daegu.kr)

**참가비** - 온라인 신청 - 신청비(경연대회) 1만원(신청비)

**대상** - 달서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 달서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문의** 달서구청 기획과 053-667-2682

**문의처** 달서구청 기획과 053-667-2682

**장외지원** - 드론 규격 등 경기규정을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접수

**장외지원** - 드론 규격 등 경기규정을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접수

**장외지원** - 드론 규격 등 경기규정을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안동 15만 시민 대화합 이뤄내며 성료'

직장부 종합부문 1위(시설관리공단), 모범선수단상(송하동, 서구동, 서후면, 용상동, 풍산읍) 화합상(임하면, 일직면, 길안면, 명륜동, 태화동) 안동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켈기대회도 진행 권기창 안동시장, "열정 가득한 시민들의 함성과 역동적인 기운을 통해 시 승격 60주년 안동 대도약의 힘찬 발걸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도시인 안동시가 시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정정스포츠 도시 안동'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9일,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을 개최, 성공적인 행사를 마치고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번에 개최된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은 '함께하는 시민체전! 하나되는 안동 시민!'을 슬로건으로 지난 9일(토) 10시,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시체육회가 주관해 안동시민 14,000여명, 초청인, 출향인, 기타 등 1만 5천여명이 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10시에 개최식을 시작으로 12개 종목의 경기가 돌입했다.

이날 아침, 함께하는 시민체전! 하나되는 안동시민!을 기원하며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의 무대를 밝혀줄 성화 채화 행사를 오전 8시 30분부터 안동시장, 안동시의회의장, 안동시체육회장 등 현관과 축관, 집

사, 칠선녀가 참여하여 고구려 및 성화 채화 행사를 진행했다.

아름다운 칠선녀의 도움으로 채화된 성화는 9시 20분 용부공원을 출발하여 태화오거리, 송현 오거리, (구)안동역, 용정교, 영호대교 남단 사거리 등 시내 전역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불꽃을 환하게 밝힌 뒤 9시 50분에 시민운동장에 도착해, 성화 주자들을 통해 10시 46분 성화대에 점화됨으로써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의 화려한 서막이 힘차게 타올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성화채화에서 "민선 8기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통해 '위대한 시민 행복한 안동' 건설을 위한 15만 시민의 대화합을 이끌겠다"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풍물 공연 등 식전행사로 체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10시, 선수단 입장으로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의 서막이 힘차게 울렸다.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민선 8기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은 15만 안동시민과 30만 안동인의 화합과 대동단결을 도모하면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안동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범시민 켈기대회를 진행하며 지역 의료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개회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성화 점화 및 선수대표선서 등이 이어졌다. 이어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15만 안동시민의 단결과 화합의 힘을 모아 안동-연행정구역통합으로 정주인구 30

만, 신산업 성장과 기업투자 확대에 경제인구 50만, 안동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1천만 시대로 도약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경기는 필드, 트랙에서 400m 계주와 출다리기, 힘자랑, 훌라후프 돌리기, 장기자랑 등 읍면동 대항 10개 종목, 직장대항 2개 종목 등의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졌다.

이날 경기 결과, 직장부 종합부문에서 1위 시설관리공단, 2위 대성재단, 3위 안동시청이 각각 차지했다. 모범선수단상에는 송하동, 서구동, 서후면, 용상동, 풍산읍이 뽑혔다. 화합상에는 임하면, 일직면, 길안면, 명륜동, 태화동이 선정됐다.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24개 읍면동 장기자랑이 이어지고, 초청 가수로 미스터트롯에 출연 중인 안동 출신 조승원의 특별공연, 가수 채서원, 정수라, 지원이, 오승근 등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12명 나는 체육대축전이 됐길 바란다"라며 "열정 가득한 시민들의 함성과 역동적인 기운을 통해 시 승격 60주년 안동 대도약의 힘찬 발걸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가을철 지역축제 사고 예방 안전감찰 나선다



경북도는 축제의 계절인 가을철 지역축제가 집중됨에 따라 9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도내 축제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에 나선다.

올해는 추석 황금연휴로 지역 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장을 중심으로 시군의 지도·감독 관리 실태와 인파 유입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축제 참가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감찰 내용으로는 △유사시 관람객 대피와 분산 대책 △안전관리요원 적정 배치 여부 △축제진행 관련 인허가 사항 △음식점·불법 노점상 단속 등

식품 위생관리 현황 △구조·구급요원 배치 및 소화 시설 설치 적절성 △공연장·전기·가스 시설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감찰 결과 축제장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해 축제 개막전까지 정비하고, 축제 진행 시에는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업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영석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축제를 찾는 많은 관람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축제에 참여하는 관람객들도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공공질서와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 '광전노협'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논의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평가 실시  
다이나믹 섬 관광 1번지, 해양 미래 먹거리 특화도시 조성 박차  
천연기 시장, "제시된 의견 검토·보완, 시에 필요한 사업이 밀지  
문제점·해결방안 고민해 줄 것과 사업이 시민들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줄 것" 당부

통영시는 지난 7일,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제1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2035년까지 통영의 미래비전 중간 성과물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중간 보고회는 천연기 통영시장, 김미옥 통영시의회의장, 시의회의원, 국·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용역 시행사인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의 중간보고 후 문제점 분석, 향후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는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최학수 책임연구원이 맡았으며, 미래전략 및 비전 제시, 부문별 SWOT분석결과, 목표 및 핵심사업 제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고 후 질의응답, 건의 및 의견제시를 통해 향후 과업의 추진방향 및 중점 착안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보고에서 통영 미래2035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미래100년, 대한민국 섬 특별시 통영"으로 정하고, 목표로 "다이나믹 섬 관광 1번지, 해양미래 먹거리 특화도시"를 제시했으며, 부문별 목표로 ▲산업·경제분야 '활력 있는 미래 해양산업 선도도시', ▲문화예술·관광분야 '남해안권 최고의 다이나믹 해양 섬 관광지 육성', ▲농·수산분야 '미래 친환경 기반조정으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복지 '청정한 바다와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 ▲도시·주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균형발전도시 완성', ▲보건·복지 '전 세대 행복한 건강도시', ▲교통·정보통신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교통·정보통신 체계 완성', ▲보육교육·체육 '미래 창의·융합 인재육성과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 생활체육', ▲행정·거버넌스 '시민과 소통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천연기 통영시장은 "민선8기의 공약 및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장기적 로드맵이 꼭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보완해 주시고,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민해 줄 것과 시민들이 봤을 때 모든 사업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자료구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 당부했다.

한편 통영시는 이후 시의원 및 공무원 인터뷰조사, 주민설명회(공청회) 운영 등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2차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1월 최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윤준/기자

# 동래구, 추석 명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 업무협약 체결,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캐시백 제공

부산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6일 행정안전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사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협업 행사로 오는 10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안정을 유도해 지역 상권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 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2023년 7월말 현재 기준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6633곳이며 동래구 지정 착한가격업소는 56개소가 운영 중이다.

행사가간 중 동래구 등 전국의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신한카드 결제하면 2000원 캐시백 쿠폰을 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신한pLay'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희태/기자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고, 2천원 캐시백 받아가자!**

**방법** QR코드로 행사 응모하고, 신한카드 결제  
**혜택**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캐시백 제공!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QR코드로 확인하세요!

행사기간 2023. 9.11. ~ 10.10.

행정안전부 신한카드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밑그림 완성, 구·군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주력할 것."

TK신공항건설은 공동합의문의 기본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  
달빛고속철도 영호남 1시간 거리로 초거대 신경계권,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기대  
9개 구·군 동반성장(동성로, 칠성야시장, 디아크 등) 적극적인 상호협력 당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한민국 3대 도시 위상과 영광을 되찾기 위해 시, 구·군인  
온신을 다하며,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큰 그림에 시, 구·군이 함께 동행"

대구광역시는 지난 7일(목),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상황과 달빛고속철도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며,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이 힘든 과정을 겪으며 밑그림이 완성됐다."

TK신공항 건설은 당초 합의된 큰 그림대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시는 대구가 3대 도시의 영광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군과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금까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것으로 4년간의 기본틀이 완성되었고, 이제

는 계획한 일정대로 제대로 집행하고 수행할 일만 남았으며, 9개 구·군이 힘을 합쳐 대구굴기의 큰 그림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공동합의문의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항공물류는 의성군 지역에 집중하고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군위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지난달 8월 22일 헌정사상 역대 최다수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연내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하면 신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남부권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구·군에도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검토, 동성로 활성화 방안,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용역결과 공유와 칠성시장 야시장을 새롭게 정비할 것, 디아크 지역을 수상 스포츠계의 메카로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 대구광역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채 발행없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구·군에도 건전 재정운용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과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와 구·군이 온신을 다하며 나아가야 하며,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큰 그림에 구·군이 함께할 것을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2023년 영양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오도창 영양군수, "영양군은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에 앞장 서겠다."고 밝혀

영양군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8일(금),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2023년 영양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여성단체 회원 및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수여, 양수발전 유치 결의, 단체활동 영상 시청, 특강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는 양수발전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여성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결집시켰으며, 이어서 MC고경환과 가수 차민기의 "100세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흥페스티벌은 신명나

는 무대선사를 선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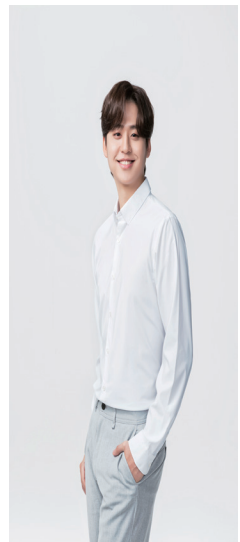
최계숙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오늘 남녀노소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어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이 촉진되길 바란다."라며 "영양군은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2023 군위청년축제' 16일 개막...2일간 군위 화본역 맞은편 구, 산성초등학교에서 열려

김진열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2023 군위 청년 축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청춘 응원 콘셉트로 구성, 향후 지역의 대표 축제를 목표로 삼는다"고 밝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에서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2023 군위청년축제(부제, 내 청춘, 빛나리)'가 오는 16일 개막한다.

지난 7일, 군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2023년 군위 청년 축제'는 오는 16, 17일 2일간 군위군 산성면 화본역 맞은편 삼국유사박물관(구, 산성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첫째 날 식전 공연에서는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가 낳은 청년 뮤지컬팀이 청년들을 응원하는 뮤지컬을 선보인다.

개막식에 이은 축하공연은 시인이면서 가수인 대구 출신 이슬로운 청춘을 응원하는 토코쇼와 함께 '국가가 부른다', '히든싱어7', '내일은 국민가수' 등에서 선보였던 곡들을 들려준다. 또 대구 도시 청년 20인과 군위 농촌 청년 20인이 서로 응원하는 '대구청년, 군위청년 소통 콘서트'가 계획돼 있다.

둘째 날에는 여행 작가가 들려주는 대구-군위여행, 청춘 치어리딩, 청춘 노래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특강과 청년 정책 전문

가 초청 특강, 청년 공방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둘째 날 진행된다.

이밖에 행사기간중 군위 청년 창업가들이 운영하는 플라마켓(위 포스트마켓)과, 청년 푸드트럭, 포토박스 운영 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편, 재단은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2023 군위 청년 축제 안전 계획'을 수립했다.

김진열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2023 군위 청년 축제는 지금까지 군위에서 볼 수 없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청춘 응원 콘셉트로 구성되며, 향후 지역의 대표 축제 도약을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장동호/기자





# 경북교육청,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장려 동시 수상

### 5회 연속 수상 쾌거! 공식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확산에 앞장 임종식 교육감, "앞으로도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3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도교육청 부문에서 우수와 장려를 동시에 수상하며 전국 최초 5회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과 다양한 혁신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교육부가 선정한 전체 우수사례 8건 중 경북교육청은 우수와 장려에 2건이 선정됐다.

우수를 받은 체육건강과 이상호 주무관은 구미시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도

입에 따른 무상우유 급식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으로 구미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무상우유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서,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시행지침을 개정해 전국 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우유 급식을 보장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장려를 받은 교육안전과 장정훈 주무관은 폭염과 강우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

해 '안심아이센터'를 조성하고 부스내 공기청정기, CCTV, 안심벨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글로벌 직업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유학 저변 확대!

### 인도네시아 교육부 및 남술라웨시교육청과 전략적 제휴 임종식 교육감, "양국 모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상 교육과정 제공, 졸업 후 지역 내 우수 기업에 취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8일(금), 인도네시아 교육부를 방문해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사업을 설명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파트너십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와 정착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 하고, 글로벌 교육과정 수출을 통한 경북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사회 공헌에 있다.

경북교육청과 인도네시아 교육부, 남술라웨시 교육청은 앞으로 ▲글로벌 직업교육을 통한 기술 인재 양성 ▲대한민국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유학생 기반 구축 및 지원 ▲유학생의 교육 및 안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행사를 미

루고 자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교육부 대외협력국장(아냥 리스탄토 세마)은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경에는 탄탄한 직업교육이 있다고 들었다"며 "직업계고의 오랜 노하우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공유에 감사드린다"며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사업에 대해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번 제휴는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중등 직업교육 관련 국외 교육청과 진행한 최초의 협의로 한-인니 간 중등 직업교육 활성화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석한 남술라웨시 교육청 과장(유스

리 가잘리)은 "우리 학생들이 취업 명품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청에서도 학생 선발과 기초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에 추진함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양국 모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졸업 후 지역 내 우수 기업에 취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학교 설명회와 면접 평가를 직접 방문한 임종식 교육감은 "여러분들은 경북 직업계고의 아주 특별한

고 값진 교육을 제공받게 될 것이며, 직업교육을 매개로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

한편 9일(토)은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을 방문하고, 유학생의 입학 전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과정 공동 개발, 한국 문화 홍보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영덕 강구중학교, '2023 청소년건강체험학교 성과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영예

### 미래 건강에 기여하는 건강캠페인 참여 견인

강구중학교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주최로 대구에서 개최된 『2023 청소년 건강체험학교 성과발표대회』에 1학년 1반 학생팀이 대표로 참여하여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는 대구경북지역 내 중학교 9개교 20개팀 45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자제적으로 기획·제작한 플래시몹을 직접 시연하고 SNS 홍보 등 참여 소감을 공유하였다.

강구중학교는 건강강을 주제로 즐겁게 협업하는 플래시몹 영상이 SNS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팀을 이끄는 리더로 참여한 1학년 이태호 학생은 "담당지도 선생님과 눈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직접 홍보하고자 많이 노력했다. 특히 반 친구들과 함께 플래시몹을 제작하면서 눈건강에 대한 관심을 느끼게 되어 휴대폰 사용시간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구중 정정보고 고철규 교장은 "청소년 건강체험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자기건강관리능력 배양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문화/기자



# '따뜻한 배움, 모두가 빛나는 칠곡교육 실현을 위한' 2023학년도 2학기 유·초·중·고 교(원)장 회의 개최

### 최원아 교육장, "새 학기를 맞아 각자 최선을 다해 줄 것" 당부하며, "따뜻한 배움을 통해 모두가 빛나는 칠곡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지원청도 적극 지원할 것" 약속해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목), 칠곡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유·초·중·고 교(원)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배움 모두가 빛나는 칠곡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학년도 지난 9월 1일 자로 이동 및 전입한 관리자들의 소개와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2023학년도 2학기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전달하고, 새 학기를 맞아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리자들은 칠곡교육지원청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따라 칠곡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새 학기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다짐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교육가족의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 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원아 교육장은 새 학기를 맞아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온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 노력하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따뜻한 배움을 통해 모두가 빛나는 칠곡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동현/기자



# 포항Wee센터, 우리(Wee)가 너의 손 잡아줄게

### 학업중단예방의 날 등굣길 캠페인 통해 예방 효과 극대화 박용래 센터장, "학업중단 예방 캠페인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들 조기 발견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돕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8일(금),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속려제(New-Start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아침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학업중단 예방의 날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독려하

는데 목적이 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업중단속려제(New-Start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였다. 학업중단 예방 현수막 게시 및 피켓, 학업중단속려제 리플렛, 홍보물품 및 간식을 배부하였으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구호도 함께 외쳤다.

박용래 센터장은 "학업중단 예방 캠페인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돕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타용/기자

# 봉화교육청, 올바른 성 문화 및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

### 내성초등학교·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 협약

경상북도 봉화군 내성초등학교는 지난 6일,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김미정)과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내성초와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상호협의 하에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전교어린이회장 강○○학생은 "성교육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었는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 올바른 성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성이란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며 건강한 성 정체성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내성초 박임식교장은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 학생들의 성교육을 할 수 있어서 기쁘며,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성교육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문화 및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하도록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주시, '제4기 MOM편한 30인아빠단' 해단식 개최

### 9일, 올해 활동 마무리... '아빠랑 함께해서 행복해요'

경북 영주시는 지난 9일, 148아트스퀘어 공연장에서 아빠들과 동반가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기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체험 ▲엄마들을 대상으로 'MOM 편한 토크콘서트' ▲그동안 적립한 'MOM 코인 활동 경매' ▲아빠단 활동 영상 시청 및 소감 나누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한 화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개그우먼 조승희와 함께하는 'MOM편한 토크콘서트'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겪은 엄마들과 공감대를 형성, 위로와 웃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한 엄마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맹영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있는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년 5기 아빠단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4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은 영주시에서 일·가정 양립문화 확립과 아빠의

육아 참여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 5세~8세 자녀를 둔 육아에 관심있는 아빠들로 구성됐다.   
올해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까지 말기농장체험, 직업체험 및 놀이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빠육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윤근수/기자



# 다인중학교, 조문국 박물관 학예사진로체험 활동

다인중학교는 지난 8일(금), 조문국박물관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직업을 가리키는 학예사라는 직업을 학생들이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 고대 의성지역에 있었던 음악국가인 조문국이 있었던 터전인 금성면 일대에서 발굴한 수많은 유물이 보관된 조문국박물관을 방문하여 이뤄졌다.

학생들은 조문국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 학예사로부터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 공부를 하였다. 이후 열린 수장고에서 출토된 유물의 관람과 유물의 복원, 보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3학년 A학생은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화려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었던 조문국의 옛 터전인 의성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학예사라

는 직업이 단순히 박물관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의 복원과 보존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의미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철수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에 기반한 장소를 통해 관련된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장동호/기자





# 전남도,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성평등' 실현한다

## 도청·남악중앙공원서 토크콘서트·영화 상영·체험행사 등 풍성

전라남도는 9일까지 이틀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전남'이란 슬로건으로 전남도청과 남악중앙공원 일원에서 2023년 전남도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주간행사는 8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을 시작으로 지용이아빠 정은표와 함께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노는 법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가족영화(로스트 도터) 상영 등이 진행됐다.

또 유리천장을 걷어내는 전남 여성들이란 주제의 릴레이 포럼, 남악 중앙공원에서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그린존, 가족행복존, 행복진로존, 정책홍보존으로 구성된 48개 부스에서 가족과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9일

까지 제공된다.

이날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명창환 행정부지사,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표창, 2022년 신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현판 수여, 가족친화기업과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협약식,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사례 발표, 실천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양성평등이라는 양 날개를 통해 미래로 멋지게 웅비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과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토크콘서트는 곡성 출신 텔런트 정은표가 알려주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노는 법'이란 주제로 어른도 즐거운 놀이법

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 만드는 방법을 강연하며 팬사인회도 함께 진행해 도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정책포럼은 '유리천장을 걷어내는 전남 여성들'이란 주제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성별 균형있는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열렸다.

김보라 광양청년여성의원, 김순애 나주여성시장, 김선옥 목포여성소방관, 서미화 목포여성장애인 등 전남지역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보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가족영화 상영에선 여성들의 삶을 다시 고찰하는 '로스트 도터(The Lost Daughter 2021년 개봉작)'를 함께 관람하며, 맞돌봄·맞살림 가족캠페인관,

가족놀이 체험관, 전남 육아 아빠 사진전, 역사 속 여성인물 사진전 등 여성·남성·가족을 모두 아우르는 소통의 장으로 치러졌다.

전남도는 기념식 위주 행사에서 올해부터는 여성과 남성,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2일간으로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가족친화인증제 컨설팅, 맞돌봄·맞살림 사업, 성평등 인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주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1996년 여성주간을 시작으로 2015년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 28번째를 맞고 있다.



박종배/기자

# 최경식 남원시장, 구도심 활성화에 동분서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사업 직접 챙겨

##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선정(79억원)



남원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구도심 주거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국토교통부 주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9억원을 확보하고, 하반기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에도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전라북도,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으며, 지난 6월 22일 당초 계획된 일정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 최종 발표평가에 직접 참석해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사업 추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광한루원과 남원추어탕 거리 등 주요관광지와 인접한 금동 14통 지역으로, 시는 이 지역에 79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민활동 거점시설 및 활력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남원시의 경

우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이에, 시는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일원에 200억원이 투자되는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구도심 쇠퇴와 도심 공동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서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 '광전노협'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논의

## 빛가람동 주차장 건립, 초·중학교 신설 등 공감대 형성



전라남도 나주시는 윤병태 시장이 최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을출 광전노협 의장을 두고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부패 행위 모의 신고 훈련, 도전 청렴 골든벨, 청렴을 기록하는 시간 '청렴 사진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날에는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주민 200여 명이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과 공무원 대상으로 행동 강령 및 청렴 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둘째 날에는 '청렴을 기록하는 시간, 청렴 사진관'을 근 직원 휴게실에서 운영했다.

청렴 사진관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MZ 세대가 즐기는 '인생 네 컷'에서 착안, 동료들과 청렴을 다짐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셋째 날에는 가상의 부패 상황을 메시지로 전달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청탁 금지법 위반 모의 신고 훈련'을 진행했다.

부패 신고 모의 훈련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부패 경험 근절을 통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했으며, 상급자가 부패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여했다.

간 부족에 따른 주차장 건립, 학생 과밀화 해소와 교육력 제고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 등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윤 시장은 국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당위성, 2차 공공기관의 기존 혁신도시 이전 추진 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제를 통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수도권보다 나주에서의 생활이 낫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춰 나가겠다"며 "빛가람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만들어가는데 있어 광전노협이 동반자가 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광전노협 제안을 통해 '반기별 나주시장과 소통의 날' 갖고 있으며 매월 건의사항을 시청 소관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기관 간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김영안/기자

# 함평군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레드서클 캠페인' 전개

전남 함평군 보건소가 2023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건강관리 캠페인을 펼쳤다.

8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 보건소가 함평군청 3040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존'을 운영해 혈압·혈당 측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 등 건강상담을 지난 6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본인 스스로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또한 군은 9월 한달동안 함평군 워크온 모바일 걷기 앱과 연계해 20만

보 걷기 및 자가건강측정 인증샷 올리기 등 다양한 건강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혈압·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 보건소는 오는 22일 함평읍 5일장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9대 생활 수칙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진/기자



# 완도군, 청렴 문화 확산 '골든벨 울리고, 사진관 인기'

## '공감·소통' 다양한 청렴 참여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공감·소통' 청렴 주간으로 운영했다.

청렴 주간은 세대, 직렬 등 서로 다른 입장에서 청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청렴 활동에 참여하여 반부패 시책을 체감하는 등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 주간에는 생활 속 청렴 실천에 초점을 두고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부패 행위 모의 신고 훈련, 도전 청렴 골든벨, 청렴을 기록하는 시간 '청렴 사진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날에는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주민 200여 명이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과 공무원 대상으로 행동 강령 및 청렴 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둘째 날에는 '청렴을 기록하는 시간, 청렴 사진관'을 근 직원 휴게실에서 운영했다.

청렴 사진관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MZ 세대가 즐기는 '인생 네 컷'에서 착안, 동료들과 청렴을 다짐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셋째 날에는 가상의 부패 상황을 메시지로 전달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청탁 금지법 위반 모의 신고 훈련'을 진행했다.

부패 신고 모의 훈련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부패 경험 근절을 통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했으며, 상급자가 부패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여했다.



모의 훈련 메시지를 받은 직원들은 "모의 훈련이지만 부패 신고는 처음이다", "신고에 대해 청탁 금지법을 다시 보니 부패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인지가 됐다" 등 훈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 날에는 청렴·반부패 관련 법률과 규정을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청렴 골든벨'이 진행됐다.

골든벨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서 진행됐으며, 1등은 보건행정과 강권기 주무관, 2등 고금면 김진호 팀장, 3등 고금면 한대동 주무관이 차지했다.

부서 응원상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산림휴양과에게 주어졌다.

신우철 군수는 "청렴은 시대나 특정 영역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덕목이다"면서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 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청렴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만국가정원 품은 스타벅스 음료 개발자 찾아가 감사 전해

## 호수정원 모델로 음료 개발한 순천 조례지점장 "지역에 도움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영감을 얻어 음료를 개발한 스타벅스 점장을 찾아가 감사를 전했다.

지난 8월, 순천 스타벅스 조례지점에서 호수정원을 모티브로 개발한 음료가 전라 지역 대표 음료('지오의 시

크릿 레시피 : 전라')로 출시됐다는 소식을 접한 노관규 시장은 8일 개발 담당 점장(스타벅스 다키넴 '지오')을 찾아가 감사 꽃다발을 전하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념품을 전달했다.

음료 개발의 모티브가 된 '호수정원'

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프랜스가 디자인한 작품이다. 13년 전 노관규 시장이 2013정원박람회를 유치·준비할 당시 직접 영구까지 찾아가 설계를 의뢰한 것으로, 지금은 순천만국가정원을 상징하는 정원이 됐다.

자신이 개발한 음료가 스타벅스 '시크릿 레시피 7' 프로젝트에서 전라지역 대표 음료로 선정되자, 지오 점장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기념으로 지역에 뜻깊고 의미 있는 음료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선정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노 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한창인 때에 마침 국내 1위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에서 국가정원과 연관된 음료가 출시됐다는 소식에 무척 기쁘다"면서, "덕분에 정원박람회가 톡톡히 홍보됐을 것 같다. 순천에 애정을 갖고 음료를 만들어준 점

장님께 감사하다. 지역에서 살며 일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노 시장은 오랜 기간 정원박람회를 꾸려가고 있는 조직위원회 전 직원에게 해당 음료를 선물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개점 24주년을 기념해 전국 스타벅스 파트너로부터 음료 레시피를 공모해, 7개 음료를 각 지역의 대표 음료로 출시하는 '시크릿 레시피 7'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53만 고객 투표 결과, 전라 지역에서는 순천에 거주하는 조례지점장이 순천만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에 영감을 받아 만든 말차 프라푸치노 음료가 대표 음료로 선정·출시됐다.

이승준/기자



# 전북도, 제22대 총선공약·국책사업 발굴 중간 점검

## 공약사업 38건, 국책사업 40건 1차 선정, 11조 6,805억원 규모

전북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사업과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 주무과장,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연구위원 등 22명이 참석해 그간 발굴 사업에 대한 보고와 총선공약, 국책사업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전북연구원, 시군, 출연기관 등으로 구성된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와 2차에 걸쳐 사업 아이템 발굴, 6개 분야별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잠정 78건(총선 38건, 국책 40건)을 선정했다.

신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미래 모빌리

티 실증기반 구축(총선 2,700억원), 전북 모태펀드 운용 전문기관 설립(총선 1,000억원), 전북 벤처밸리 조성(국책 4,052억원), 첨단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구축(국책 755억원) 등 10개 사업(총선 4, 국책6)을 발굴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푸드테크 인증센터 설립(국책 500억원), 식품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국책 500억원), K-Food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참조표준 DB 구축(국책 600억원), 바이오 첨단소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국책 500억원) 등 8개 사업(국책 8)을 발굴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동부권 연계관광 개발 프로젝트(총선 1,350억원), Active Schools, Active 전북(총선 1,500억원), 합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국책 3,000억원), 국립 후백제 역사 문화센터 건립(국책 450억원) 등 6개 사업(총선 3, 국책

3)을 발굴했다.

동부권·새만금 분야에서는 호남선 김제~정읍간 고속도로 확장(총선 5,585억원),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총선 25,496억원), 스마트 김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국책 800억원), 국대도 4차로 신설(완주용진~익산출포)(국책 4,150억원) 등 23개 사업(총선 16, 국책 7)을 선정·발굴했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유치(총선), 진안고원 하늘숲산악공원 조성(총선 1,500억원), 교통약자 보행 안전도시(J-City) 구축(국책 1,000억원), 만경강 열린 생태박물관 조성(국책 1,000억원) 등 15개 사업(총선 7, 국책 8)이 제시됐다.

복지·교육 분야에서는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총선 1,600억원)과 고령친화 사회서비스 산업복합단지 조성(국책 15,000억원), 전북도 진로교육원 설립(국책 1,500억원), 새만금 글로벌

외국인 교육 단지 조성(국책 1,000억원) 등 16개 사업(총선 8, 국책 8)이 발굴됐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핵심사업들을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당위성 등 논리를 마련하고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며 “전북특자도의 성공적인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가사업 발굴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사업 발굴 방식을 종전 도·전북연·시군 추진단 중심이던 것을 확장해 정부와 도내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도내 정부출연기관 등 혁신기관과도 연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이번에 논의한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혁신기관 연계 사업 구체화 검토를 거쳐 2차 중간보고, 최종 보고 후 12월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남출/기자



# 진도군, 진도개 전문 수의사 진료 시작

## 진도개 전문 수의사 채용으로 진도개 양육 농가에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

진도군이 진도개 메디컬센터에 진도개 전문 수의사를 채용해 진료를 시작했다.

전문 수의사 채용으로 진도개 양육 농가에 진도개에 대한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천연기념물인 진도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진도군에 개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없어 양육 농가들이 외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수의사 채용으로 진도개 양육 농가에 편의 제공과 경제적 부담 또한 줄어듦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개 메디컬센터는 지난 2011년

에 진도를 동외리 일원에 건축해 1층 진도개 메디컬센터, 2층 사무실과 연구실, 3층은 다목적강당을 설치해 진도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진료를 하고 있다.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전문 수의사 채용으로 진도개의 관리·보호 체계 개선으로 진도개 양육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도개 혈통관리와 명견 진도개의 위상을 이어 나가겠다”며 “추후 진단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구례군, '2023.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수상

## 귀농·귀촌의 중심 구례, 차별화된 귀농·귀촌 유치 활동 호평

전남 구례군은 9월 1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적극적인 귀농인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는 280여 개의 지자체와 기관 등이 참가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의 최신 트렌드와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구례군은 귀농·귀촌 지원정책 소개, 맞춤형 상담, 농·특산물 시음·시식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홍보 부스를 활발하게 운영했다.

특히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구례 정착 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 활동에는 많은 도시민들의 이목이 쏠렸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박람회는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구례군의 우수한 생활 여건과 다양한 정책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하반기에도 수원, 부산 벡스코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김성현/기자



# 화순군,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실시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 및 올바른 주거문화 기여



화순군은 지난 9월 6일 오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관내 27개 단지 의무 관리 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김경철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前 주거복지 지원, 주택관리 총괄 및 정책 담당)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경비원 인권 보호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병호 LH 토지주택대학교 부총장(LH 토지주택대학교 부동산학 박사)이 사업자 선정 지침, 공동주택 감사 사례, 회계처리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 회장은 “화순군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 특성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며 의견을 내치기도 했다.

한병호 부총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이 화순군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여 올바른 주거문화를 이끌고 나아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한편, 화순군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 수요 조사 및 선정 실시 계획임을 밝혔다.

윤경호/기자

# 신안군,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행정 펼쳐

신안군은 73개 유인도서가 있는 지역이고 고령 인구가 많아서 '찾아가는 자원순환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주제는 '올바른 분리배출, 어렵지 않아요'이며,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군내 8개 경로당에 직접 가서 분리배출 시범과 체험, 퀴즈를 통해 주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양도 많고 복잡해서 배출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전단, 영상, 플래카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홍보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등이 섞여서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한정된 예산과 인력, 장비에도 불구하고 선별작

업에 환경미화원을 더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신안군은 지역 여건과 인구, 복잡한 배출 방법 등 위기 요인을 인구도 적고 경로당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등 오히려 홍보의 기회 요인으로 생각하고, 배출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

신안군은 이 캠페인이 분리배출 확산의 첫걸음은 물론, 폐기물처리에 대한 업무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우량 군수는 “분리배출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이며,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며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주민의

분리배출 의식과 실천을 높이고, 쓰레기 수수로 종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전남도, 목포에 전국 최초 지역거점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전라남도는 8일 목포에 전국 최초 지역거점 통일플러스센터가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미래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지역 거점으로서 남북 교류협력 지원, 통일 교육 및 통일 자료실 운영, 탈북민 정착 지원 등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일괄(원스톱) 지원한다.

개관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홍용 목포시장, 공공민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호남권 통일센터 앞마당에서 축하 공연, 업무협약식, 개관 기념사, 축사, 제막식,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 2021년 착공, 사업비 79억 6천만 원(국비 31.5억 원·도비 48.1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천970㎡ 규모로 건립됐다.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평화통일 자료실, 통일체험 전시관, 광장 등을 비롯해 다목적 요리교실, 대회의실, 교육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을 갖췄다. 남북교류 협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와 전남하나센터 등 지원기관까지 입주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지역 거점으로

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통일플러스센터가 미래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지역 거점으로서 남북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평화의 땅 전남을 시작으로 남북 평화의 시대가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평화통일 기반시설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설이다. 통일부는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 강원도, '우리가 만드는 탄광지역의 내일!' (재)한국여성수련원,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 참가자 모집

### 강원특별자치도 주최, (재)한국여성수련원 기획·운영 - 총 90명 참가자 모집

(재)한국여성수련원이 오는 9월 22일까지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주민을 대상으로 '2023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 참가자 총 90여명을 모집한다.

이번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지역의 주민'에 집중, 지역의 변화를 이끌 주체를 양성하고, 탄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기획됐다.

지역의 리더양성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과정(30명)', '행복한 주민을 위한 '가족힐링 프로그램(60명)'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참가자 전원에게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은 마을 공동체 활동 사례 강의 및 현장 중심의 모의계획과 워크숍, 그리고 차별화된 탄광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선진지(대만) 견학이 포함됐다.

또한 '가족힐링 프로그램'은 탄광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호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체 의식과 주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힐링·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수련원이 기획·운영해 왔으며, 2022년까지 총 1,851명의 주민과 함께했다.

(재)한국여성수련원은 또한 오는 12월, 탄광지역 여성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사회참여 아이디어 발굴 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영 (재)한국여성수련원 원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탄광지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고 말하며, "지역의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족'이며, 가족의 변화가 지역변화의 시작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넓고 깊게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고 전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한국여성수련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동원/기자

**우리가 만드는 탄광지역의 내일!**

신청기간: 2023. 9. 22.(금) 까지

1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대만 선진지 견학 포함)

2 가족힐링 프로그램

강원특별자치도, (재)한국여성수련원,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원강수 원주시장, '현안 사업' 적극 건의

### 원주시, 주요 현안 사업 협조 당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8일 휴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14시)와 서원구역(14시 50분) 등 원주시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원주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 정의경 원주시방국토관리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원주시는 휴업면(사제리 1330-1)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원수 국토대체우회도로 휴업-지정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20년째 답보 상태인 국토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휴업-지정)의 조기 개설과 국토부가 진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상습 지체구간인 국도42호선 문막-휴업 6차로 확장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의경 원주시방국토관리청장은 "현재 국토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조기 착공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원희룡 장관은 서원구역으로 이동하여 여주-원주 철도사업, GTX 및 수도권 전철 연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원강수 시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GTX와 판교-여주 광역철도의 원주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원희룡 장관은 "원주의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사업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며,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원칙과 원주시 속원사업인 점등을 감안하여 제안한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2차년도 제1차 정례회 개최

### 이상호 태백시장, "민선8기 2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태백에서 개최하게 돼, 영광이며, 청정도시 태백의 맑은 산소로 힘찬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래

태백시는 지난 7일, 태백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2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하여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물수마약 보관사무 개정 등 5건의 안건 논의와 제15회 강릉커피축제, 단군기원 4356년 태백산 천제 등 총 12건의 시군별 주요 행사를 홍보하였다.

김진하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양양군수)은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2차년도 첫 회의에서 시장 및 군수님들과 지역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는 22일부터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민선8기 2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태백에서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며, 청정도시 태백의 맑은 산소로 힘찬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유상근/기자



# 속초시,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건립부지 선정 평가기준 주요자료로 활용

속초시가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 최근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속초시는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만 18세 이상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전화설문과 현장설문, 온라인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2,469명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설문은 성별·연령·거주지 등 기초조사와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인지도, 현속속시청사에 대한 불편사항 그리고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 시 위치 결정요인 등을 내용으로 실시했다.

설문방법은 조사결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화 면접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대행을 통해 시민 1,000명을 무작위로 안내해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고, 현장 설문조사는 속초시 관내 8개 동 주민대표인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96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는 속초시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50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결과 신청사 건립 추진에 인지도 조사결과는 응답자 중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없다' 등 알고 있다는 인지도로 답한 응답 비율을 전화면접 59.1%, 현장설문 88.1%, 온라인설문 95.2%로 나타났고, 모르겠다는 미인지의 경우 40.9%, 11.9%, 4.8%로 나타났다.

현 시청사에 대한 불편한 점은 5개 항목(건물 노후, 접근 불편, 주차공간 부족, 편의시설 부족, 청사공간 부족)으로 구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면접,

현장설문, 온라인설문 모두 '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불편한 요소라 응답했고, '건물 노후', '편의시설 부족', '청사공간 부족'은 그다음 높은 점수로 불편하다 조사됐지만 '주차공간 부족' 보다는 불편 정도가 낮은 반면 '접근 불편'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불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 내용 중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여겨질 수 있는 신청사 건립부지 위치결정요인에 있어서도 6개 항목(장래확장성, 개발용이성, 이용편의성, 입지환경, 비용경제성, 지역균형발전성)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 현장설문, 온라인설문 모두 '이용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으로 '장래확장성'과 '개발용이성', '입지환경', '지역균형발전성' 4개 항목은 조사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용편의성' 보다는 낮은 점수이면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점수분포를 보인데 반해 '비용경제성'은 위치결정요인에 있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을 나타냈다.

속초시는 이번 설문조사결과와 16번의 주민설명회, 2차례의 시민토론회 등 다방면으로 수렴한 시민의견을 토대로 10월 중 개최예정인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4차 회의에서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 2차례 정도 예상하는 추가회의를 통해 건립부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속초시 미래백년의 중심축이 될 신청사 건립부지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 '평균해발고도 900m 고랭지사과 라이브커머스' 추석맞이 태백사과 브랜드 마케팅 추진

### 이상호 태백시장, "태백사과 천상에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도 우수 상품성을 인정받은 사과로 향후 고랭지 명품사과로 고급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LIVE**

태백시 x 태백요원 x 태백사과연구회

[고랭지] 태백사과 라이브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고품질의 품질 관리 "정성스럽게 담아 보내드립니다"

태백사과 구매하기

태백시는 평균해발고도 900m 고원지대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사과인 태백사과 천상에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추석맞이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태백아리수'와 '태백홍로'는 높은 해발고도와 일교차, 석회질 토양으로 풍미와 식감, 당도가 14~16브릭스(brix)로 높아 상품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석맞이 태백사과 라이브커머스는 5kg 100세트 한정판매하며, 가격은 15~16과 6만5천 원, 17~18과 5만5천 원이다. 라이브 방송은 9월 7일 사과농가에서 수확 현장을 시작으로 9월 13일 사과선별 현장 방송, 9월 16일 황부자 머느리 축제장에서 시민참여 이벤트 진행, 9월 18일에는 사과포장 현장 생방송을 진행한다.

주목한 추석맞이 선물용 태백사과는 우수한 품질로 선별하여 9월 20일부터 배송을 시작한다. 또한, 특별프로모션으로 구매자 중 10명을 선정하여 태백귀리로 만든 곰팡이떡 300ml를 증정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사과 천상

에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고랭지 명품사과로 고급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온양4동, 신정호 아트밸리의 중심지”

‘2023년 하반기 온양4동 열린간담회’ 개최...경찰병원 연계 청사진 제시

박경귀 아산시장은 8일 ‘2023년 하반기 온양4동 열린간담회’에서 “온양4동은 ‘아트밸리 아산’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신정호 아트밸리’의 중심지”라며 경찰병원과 연계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시의회 김희영 의장과 이기애 부의장, 전남수·신미진 의원,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신정호는 국민관광지에서 새로운 수요에 맞게 심과 힐링, 생태 문화 중심지로 바뀌게 된다. 충남지방정원 1호 지정을 위한 조성이 한창이고, 2030년 목표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이라며 “그 중심 역할을 신정호를 품은 온양4동이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온양4동에 경찰병원도 유치해 의료복지가 향상될 토대가 마련됐다. 경찰병원 인근에 신도시를 만들어 의료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날(7일) 경찰병원 예타 면제를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돼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병원이 2028년 건립될 수 있도록 뛰어다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방축지구, 배미지구, 실옥지구 등 미흡했던 도시개발도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온양 4동은 문화예술과 수변 생태, 의료복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노후 아파트 단지 시설 보수 지원, 벼농사 흑명 나방 피해 지원, 득산2동 오수관로 사업 조기 추진 및 대상 가구 확대, 방축수영장 주차장 확보, 방축동 마을 도로 확포장, 수도권 전철 신정호 역사 건립 등을 건의했다.

한편 온양4동은 지난 상반기 열린 간담회에서 총 26건의 건의 사항이 제기됐다.

이 중 7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10건이 진행 중(2023년 가능 7건, 2024년 가능 3건)이다. 또 중장기 검토 8건, 처리 불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원호/기자



### 당진시, 인근 시군과의 적극적인 인사교류 추진

#### 인접 시군 간 실질적 협조체계 구축 기대

당진시가 오는 10월부터 인근 시군과 계획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5일 아산시청에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과 함께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계획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별 사전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로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개발 등의 장점이 있다.

교류 가능 직급은 우선적으로는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만족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및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획인사교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하여 교류 대상자에게는 성과급

우대, 근무성적평점 가점, 인사교류 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보조비와 교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활성화 협약을 통한 인사교류를 통해 인접 시군 간의 실질적인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인접 시군과의 계획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 강화와 공무원 개인의 역량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실시하게 됐다”라며 “교류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동감 있는 시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2024-2025 충남 방문의 해' 준비 착착

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방문객 4000만명 유치 세부계획 점검

충남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2025 충남 방문의 해 운영 실행계획' 중간보고회를 열고, 방문객 40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준비한 세부 실행계획 중간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중간보고에서 공주대 산학협력단은 방문객 유치를 위한 충남만의 특징(시그니처)적인 사업, 홍보,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제안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성공적인 충남 방문의 해를 위해서는 매력적인 도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상품 개발 등 도와 15개 시군이 협업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충남 방문의 해 콘셉트를

‘일상처럼 가깝고, 취미처럼 재미있는 충남여행’으로 잡고, 일상 속 여가 강조,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장점, 젊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현안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 관계자는 “충남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도-시군,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한마음이 되어 핵심 콘텐츠 발굴 및 사업 구성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충남 방문객 4000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충북도, 도민안심프로젝트 도내 곳곳에서 순풍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도, 시-군, 민관 합동으로 두 손 걷어 올려



도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충북도의 '도민안심 프로젝트'가 도내 전역에서 닦을 올렸다.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이 위협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진행된 도민안심프로젝트는 충북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의기투합하여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도의회, 충북교육청, 충북경찰청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민간단체와 지난 8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차에 걸친 도-시군 정책협의회와 시장군수회의를 통해 시군 활동계획을 점검 협의했으며, 각 시군에서도 민관합동으로 안전활동을 집중 추진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험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치안 및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경찰서와 연계하여 산책로, 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 안심귀갓길 내 CCTV, 보호등, LED안내 표지판 등 시설을 점검, 터

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밀집지역 내 안전순찰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지난 여름철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급경사지, 침수취약구역 등에 대한 사전 예찰,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과 함께 주1회 수시로 진행하던 무더위 쉼터 점검 등 예찰을 주2~3회 정기적으로 확대했으며, 전통시장, 다중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와 함께 예방순찰, 사전 위험요인 제거 등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외에도 9월에 청주공예비엔날레, 우륵문화제, 제33회 충청북도생물체육대회 등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로 축제 현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범죄안전, 소방안전, 관람객 안전사고 대비 등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 안전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도민안심프로젝트를 통해 도와 시군, 민간기관이 힘을 합쳐 도민이 안심하게 즐길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안전한 충북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 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해 재산세 부담 완화,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연장

천안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022년 9월(970억) 대비 80억 원(8.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소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감세 정책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이 납부 대상이고, 이번 9월은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특히, 올해 주택 재산세는 모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43%까지 하향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부과했다.

또 당초 납부 기한이 10월 2일까지였으나,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납부 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됐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 (최대 60개월)의 경과산금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원호/기자





# 서울시, 9월에 음식물 조리 화재 연중 가장 많아 ... 추석 연휴 각별한 주의 당부

### 최근 5년(2018~2022년)간 통계 분석...9월 화재 총 2114건, 사망자 15명 발생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9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9월에 발생한 화재는 2,114건으로 전체 화재 중 7.6%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15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119명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추석 명절 등의 영향으로 9월에는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총 525건(10.6%)으로 연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9월에 '음식물 조리' 화재가 많은 것은 추석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인한 화기 사용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음식물 조리 시 외출을 삼가시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위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77,764건이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9월에는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조치 출동이 2,715건으로 나타나 1월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많았다.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은 시기인 9월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통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웅기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은 추석 명절 전후로 크고 작은 화재 및 안전사고가 증가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인천시, 개학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260여 개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 점검·단속

인천광역시시는 9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이해 260여 개 초등학교 등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시와 각 군·구 합동으로 위해요인 사각지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최근 스쿨존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드러내는 '민식이법 놀이'가 다시 성행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한 상황으로,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을 집중점검하고 철

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각 군·구와 관련기관에 학교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부했다.

박찬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주인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시민들과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라며 "배포한 가정통신문과 리플릿으로 적극 홍보·활용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청주시, 성매매방지 민·관·경 합동점검 및 홍보캠페인 실시

### 오창 유흥·단란주점 68개소 성매매방지 제도

청주시는 지난 6일 밤 청원경찰서, 상담소 늘봄, 시민파트너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5명을 편성해 청원구 오창읍 지역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68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성매매방지 게시물 준수 여부와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피해자 지원 안내문 등을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함께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흥

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에 대해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현장점검을 통해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8월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금지 및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를 기재한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 전북도, 추석 명절 대비 터미널·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터미널 30개소, 전통시장 59개소 등 89개소이다. 이 중도에서는 10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 79개소는 각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 건축·전기·가스·소방 4개 분야로 구성돼 총괄하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 누전 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 계단 등 물건 적치상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금번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에 추석 명절 전까지 보수·

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귀성객 및 도민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 서울시, 추석 맞아 할인율 7% 온라인쇼핑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 판매

## 12일(화) 오전 10시 77억원 규모 발행,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인 월 50만 원 구매 가능

서울시는 12일 10시부터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을 7%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는 총 77억원이다.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오프라인 유통 판로가 막힌 소상공인을 돕고 시민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쇼핑전용 상품권이다. 추석 등 소비 수요가 높은 시기에 집중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11번가 내 'e서울사랑샵'에서 사용 가능, 소상공인 판매수수료 30% 감면으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이번에 발행하는 쇼핑전용 상품권의 사용처는 'e서울사랑샵'이다. 'e서울사랑샵'은 서울시와 11번가가 제휴·운영 중인 소상공인 온라인전용판으로 8만여 소상공인 상품 2천9백만여 개를 판매하고 있다.

소상공인 판매수수료를 기존 대비 30% 이상 낮춰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판매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추석 기획전 할인쿠폰 동시 적용으로 최대 21% 할인 혜택...12월에도 연말 특별 기획전 예정'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7% 할인된 금액의 e서울사랑샵 전용 상품권 판매와 함께 시즌별 온라인 기획전 '슈퍼서울위크'를 개최하여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슈퍼서울위크'는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이다. 올해는 연중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11번가 e서울사랑샵에서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추석 맞이 2차 온라인 기획전에서는 1인당 15%, 최대 1만원 한도 내 할인쿠폰이 발행된다. 7% 할인된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도 할인쿠폰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건강식품, 과일, 생활용품 등 추석 맞이 상품을 최대 21%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은 서울시민 생활금융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해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Lay앱에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구매 할 수 있다. 1인당 총 100만 원까지 보유 가능하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구매 취소할 수 있고, 사용한 경우는 보유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결제법(5개)' 11번가 검색창에 원하는 상품 검색 후 좌측에 있는 필터에서 'e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상품권으로 구매가능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상품 상세 페이지의 'e서울사랑상품권' 로고()로도 확인 가능하다.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쇼핑물 자체 할인쿠폰사용이 가능하며 T멤버십 혜택 등이 중복으로 적용된다.

'10월 중 우체국쇼핑 e서울사랑샵 오픈 예정,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사용편의 높아질 전망'

올해는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플랫폼도 확대된다. 시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는 e서울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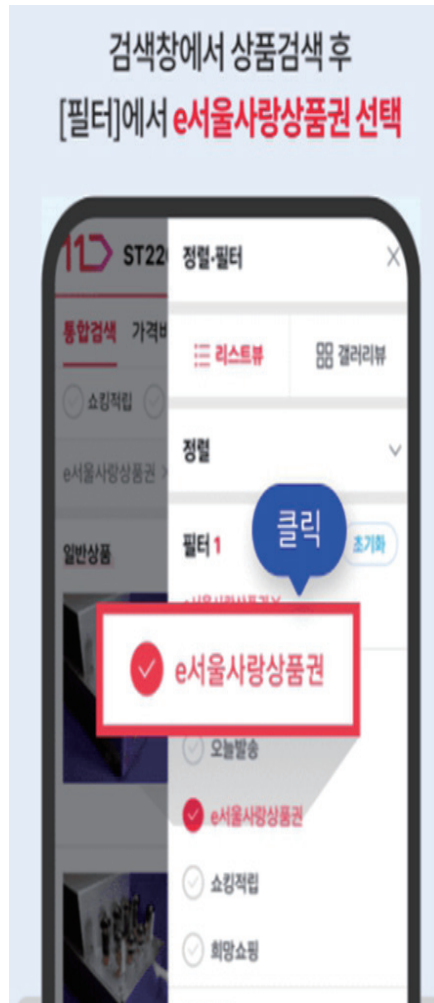
샵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7월 공개모집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우체국쇼핑이 e서울사랑샵 추가 운영 유통사로 선정됐다.

우체국쇼핑은 1986년부터 전국 우수 특산물을 발굴하여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산지 직송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온 공공쇼핑몰이다.

다가오는 10월부터 e서울사랑샵# 전용관 운영을 통해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 약 2천여 업체의 5만 6천여개 우수 상품 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구매 고객 증대를 위한 특가 판매와 구매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쇼핑전용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온라인에 진출한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도움이 주겠다"며 "쇼핑전용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로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진주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발전협의회 개최

진주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주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식량산업 종합계획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하여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RPC 대표이사, 식량생산 대표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진주시 식량산업 분야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와 관계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발전협의회를 통해 식량산업 분야의 적정 자급률, 시설 투자 수요 등의 분석으로 식량 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중장기적 지원책과 방안을 제시하는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수립된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9월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하고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승인시 각종 국비 연계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진주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식량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식량산업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시 식량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국방부,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예고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제2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약칭: 마이콘 MAICON, Military AI Competition)'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국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군 및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역량을 보유한 인재 발굴을 위해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22년부터 개최한 대회이다.

1회 대회 개최 결과, 장병 및 대학생 등 약 1천 1백여 명이 참여하여 국방 분야 이슈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등 성장리에 진행됐다.

이번 대회 참가 대상은 군 장병(간부, 병사, 군무원 등) 및 일반인(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 29세 이하)이고, 신분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예선 및 본선 대회를 운영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예선은 온라인 환경에서 인공지능 이론 평가 및 코딩테스트를 진행하고, 참가자의 성적순으로 본선 진출이 결정된다.

본선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3일(2박 3일) 동안, 제시된 국방 관련 주제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해결 모델 개발물을 평가하여 부문별최종 순위가 가려진다.

각 부문별 최우수 팀에는 국방부 및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8,200만 원의 시상금 및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 부문 수상자에게는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취·창업 상담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업의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 참여시 선발 우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최광수/기자



# 산청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 학교급식지원봉사자 대상 어르신 안전·소양교육 등

산청군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급식지원봉사자 참여자(직접사업)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5일과 6일 산청군 노인회관에서 산청지리산도서관에서 각각 진행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의 안전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서는 화상예방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활동일지 작성법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학교급식지원봉사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급식 보조와 급식소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창과방패

## 고소특 공익신고

# 창과방패

(돈 버는 비법 지침)

문성욱 지음

문화어성

문성욱 지음

# 튀김 주방大변혁

## 유증기 추출로 쾌적한 주방 환경

# 유해물질 99.98% 감소

식용유활성화기기 Vitalro 바이탈로 Oil Fresher

유증기 감소 효과로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

현재 운용하는 튀김기에 기존 식용유를 바이탈로 기기에 넣고 활성화시키면, 양자 에너지 생체 활성화로 식용유의 산패 및 열화방지 기능이 우수하여, 식용유의 점도가 현저히 낮은 극나노화 현상이 되면서

1. 결과 속이 동시에 튀겨져 튀김이 깨고 맛있습니다.
2. 유증기 발생이 최고 99.98% 감소되어 불쾌한 냄새가 없어져 주방 환경이 청결해지고, 인체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급식식당 중식자 피해-산업재해 인정※

급식노동자 폐와 이상소견 1만명 달해... 미신고 341명, 충격적인 검진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폐암검사 결과 수검자 32.4% 이상소견 발생

수년째 경고했지만 중식·학교배달급식노조 검진 당사자 입장 발표

매달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인력 증원, 교육부 해결 촉구

**Vitalro는 국내 유일 최극소량 유증기 발생**

국내 유일의 최극소량 발생 시험성적표입니다.

(유증기로 인한 주방-매장의 악취·외재발생·조리사의 건강악화를 예방합니다)

식품유종류	비발로	일반 식용유
비발로	0.02wt%	0.17wt%

바이탈로 식용유와 일반 식용유의 유증기 발생량 비교 실험 (한국기계연구원시험연구원 2023.03.24.-04.05.)

**바이탈로 식용유 일반 식용유**

0.02wt% 0.17wt%

(중발량 170℃, 24시간)

**HBS 고풍방송 선정 맛집여행**

**Vitalro 설치업소**

원산지 식재료와 깨끗한 바이탈로식용유로 고객에 대한 정성이 있는 체적하고 안전한 매장

(주) Myeongjin Vitalro **명진 바이탈로** 설치·상담 문의 **1899-9659**

한국친환경실현연구회

A/S 및 소비자상담실 02)477-5004



# '상주화령장지구전투' 그날을 기억합니다.



2023. 9. 15.(금) ~ 17.(일) 3일간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려 강영석 상주시장, "상주시는 이번 본 행사를 참전영웅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호국보훈문화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혀

상주시와 제50보병사단은 오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3일간, 상주시민운동장과 상주 시내 일원에서 제73주년 상주화령장지구전투 전승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상주시와 제50보병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전승기념행사는 호국보훈의 도시 상주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상주화령장지구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군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행사로 올해 15회 행사로 개최하게 된다. 15일(금)에는 '큰별뿔' 최태성 강사가 전하는 상주화령장지구 전투 특강을 진행하며, 16일(토)에는 전승기념식 및 참전영웅 위로연이 열려 민관군이 하나

된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전승기념식에는 화령장지구전투에 참여한 17연대 참전영웅이 함께하며, 올해는 5년 만에 참전영웅, 군악대, 군 장비 등이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열려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17일(일)에는 군악대 및 2군단 태권도 시범 등 축하공연이 열리게 된다. 호국보훈문화축제로 개최되는 올해 행사는 일반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참여부스를 운영한다. 병영체험, 페인트탄 사격체험, 전투장비 체험, 이동식 PX, 드론축구 등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축하가수 공연 및 다양한 소공인이 실시되어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개최하게 된다. 김동현/기자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지역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화령장지구전투가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민간인 최초신고자,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참전영웅 등 민·관·군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다며, 상주시에서는 본 행사를 참전영웅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호국보훈문화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화령장지구전투는 1950년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경북 상주시 화령지역에서 국군 17연대가 북한군 15사단을 격멸하여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전투이다. 김동현/기자



## 의성군, 2023 행복마을자치사업 행복공유마당 개최

김주수 의성군수, "마을 자치활동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을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혀



의성군은 지난 6일, 2023년 행복마을자치사업 행복공유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공유마당은 행복의성지원센터 마을자치팀이 주최했으며, 41개 마을 7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행복공유마당은 마을간 교류의 계기

를 마련하고 상호신뢰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유마당은 41개 마을의 자치활동 소개, 마을별·분야별 인적자원 안내, 활동 시 애로사항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마을간 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공유마당에 참여한 한 주민은 "마을에서 고민을 할 땐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우리 마을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즐겁게 활동하는 마을들을 보며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마을 자치활동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을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김천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개최

### 건강도 지키고 지구도 지키GO!

김천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개최 중이다. 올해 행사는 2회에 걸쳐 추진 중이며 1차 행사는 2023.05.29.(월)~06.16.(금) 진행됐고, 2차 행사는 2023.09.18.(월)~10.06.(금)으로 예정되어 있다. 행사는 전용 앱 '에코바이크'와 연동하여 추진된다.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에코바이크'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 및 참여 도시를 선택하면 된다. 로그인 후 출퇴근 시간을 설정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1km당 10포인트, 일반시간대는 1포인트

가 적립되며, 주행 시작 전 앱을 실행하여 '주행 시작', '주행 종료'를 탭 해야 포인트가 산정된다. 행사기간 내 주행실적이 있다면 자동 참가 등록되며 3주간의 주행실적에 따라 우수자에게 김천사랑 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외에 커피 쿠폰 등도 실적 순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상반기 1차 행사에 이어 하반기 2차 행사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김천시에 자전거 이용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사업을 시행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 법전면이장협의회,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강한 의지'

### 이장회의 결의대회, 이동별 동참 운동 등 주민참여 유도

봉화군 법전면이장협의회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면 이장협의회 13명은 먼저 6일 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에서 양수발전소 유치의 효과를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 확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이후 7일에는 각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농어민수당 지급 현장에서도 지역 최대의 성장동력이 될 봉화 양수발전소의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양수발전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데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경철 이장협의회장은 "법전면 이장협의회는 봉화 양수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 말하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경숙 법전면장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쓰고 있는 법전면 이장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수발전소 유치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 업무협약식 가져

###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원도심 내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경주시는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2차 주민제안 공모사업 업무협약 및 회계교육'을 지난 6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참여 공고를 통해 최종 선정된 2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지난 2월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이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2개 팀은 성동시장의 특색이 담겨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굿즈를 제작해 성동시장을 홍보한다. 또 어울림 마당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

명을 설치해 범죄예방 및 사고 취약지역 개선은 물론 어울림마당 활성화방안의 사업 유형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공모는 500만원, 기획공모는 1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더불어 컨설팅과 회계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2차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지난 2월에 진행한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이어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재생 기반을 마련해 황오동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타용/기자

## 제44회 영주시민체육대회 개최, 시민소통과 화합의 장

### 선수입원 2500여 명 참가, 18개 종목서 열면 경기 펼쳐 1만여 시민 한자리에 모여 체전 즐기며 화합하는 시간 가져

영주시는 시민운동장에서 1만여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제44회 영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오전 9시 개식통보에 이어 선수단 입장장 성화점화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는 19개 읍면동, 29개 학교, 8개 직장·단체 등에서 출전한 2500여 명의 선수·임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과 단결된 힘을 발휘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이날 체전에서는 육상, 마라톤, 줄다리기, 씨름, 풋살, 줄넘기, 투호, 게이트볼, 피구, 한궁, 배구, 족구, 테니스, 홀라후프 이어달리기, 중량들고 달리기, 기관단제장 이어달리기, 장

기, 바둑으로 18개 종목이 펼쳐졌다. 폐회식에서는 종합우승 시상식에 이어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행운권 경품추첨이 펼쳐져 많은 행운상품들이 주어졌다. 영주시는 시민안전과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시민운동장 내에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해 참석자들은 시민운동장 앞 서천 둔치 임시주차장 등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등 대회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대회를 마칠도록 노력했다. 이날 체전에서는 육상, 마라톤, 줄다리기, 씨름, 풋살, 줄넘기, 투호, 게이트볼, 피구, 한궁, 배구, 족구, 테니스, 홀라후프 이어달리기, 중량들고 달리기, 기관단제장 이어달리기, 장



## (재)울진군장학재단, 울진사랑 장학금 수여식 개최

### 관내 고등학생 55명에 총 3,100만원 장학금 지급 손병복 울진군장학재단 이사장, "장학사업의 다각적인 재검토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혀

(재)울진군장학재단은 지난 7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울진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학업우수자 및 학업성취도 향상자 등 관내 고등학생 총 55명에게 3,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번에 지급한 울진사랑 장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인원 제한 없이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우수 기준(국·영·수 등급 합계 3~4등급은 100만원, 5~6등급은 50만원)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업우수장학금과 학업성취도 향상자 등(학교장 추천, 1인당 50만원)에게 지원하는 희망장학금 2종류이다. 울진군장학재단은 지난 6월에 둘째 이상 자녀녀 가정의 고등학생 780명에게 다 자녀 장학금 3억9천만 원(1인당 50만 원)

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부터 장학금을 150만으로 상향한 대학생장학금 1차분을 지난 8월 31일 955명에게 13억 9천 5백만 원 지급한 바 있다. 장학재단은 9월 15일까지 대학생장학금 1차 미접수자 및 복학생 중 동일학년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대학생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손병복 울진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 지급으로 관내 고등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적향상과 지역에 대한 애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학사업의 다각적인 재검토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며 울진 인재육성 및 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 세븐틴·스트레이 키즈, '2023 더팩트 뮤직 어워즈' 4차 라인업 확정...TMA '꿈의무대' 합류

글로벌 K-POP 열풍의 주역들이 '2023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 무대를 빛낸다.

6일 '더팩트 뮤직 어워즈 (THE FACT MUSIC AWARDS, TMA)' 조직위원회는 "그룹 세븐틴(Seventeen),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2023 더팩트 뮤직 어워즈' 4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세븐틴은 지난 4월 발매한 미니 10집 'FML'로 미국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9주 연속 진입하며 최장기간 차트인 신기록 행진을 세웠다. K-POP 아티스트 최초 단일 앨범으로 판매량 620만 장을 거머쥔다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막강한 글로벌 파급력을 증명했다.

지난달 첫 일본 베스트 앨범 'ALWAYS YOURS(올웨이즈 유어스)'를 발매하며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오른 세븐틴은 6일 도쿄 돐을 시작으로 일본 다섯 개 도시를 돌며 데뷔 이래 최대 규모의 일본 돐 투어 'FOLLOW TO JAPAN(팔로우 투 재팬)'을 진행한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6월 발매한 정규 3집 '★★★★★ (5-STAR)'로 'ODDINARY(오디너리)', 'MAXIDENT(맥시던트)'에 이어 '빌보드 200' 정상에 세 번 연속 오르는 대기록을 썼다. 또 누적 판매량 500만 장을 돌파하며 펜타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거머쥔 등 가요계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대 타이틀곡 '神메뉴(신메뉴)', Back Door(백 도어)', '웰메이드 음악으로 매 앨범 커리어



소리꾼', 'MANIAC(매니악)' 등 네 개의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조회수 2억 뷰 반열에 오르며 롱런 인기몰이 중이다.

K-POP 4세대 보이그룹 최초 일본 4대 돐 공연장 입성 및 전석 매진에 성공한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달 16일 포문을 연 데뷔 첫 돐 투어 'Stray Kids 5-STAR Dome Tour 2023(파이브스타 돐 투어 2023)'로 상승세를 견인한다.

이어 6일 일본에서 첫 번째 EP 'Social Path (feat. LiSA) / Super Bowl -Japanese ver. (소셜 패스 / 슈퍼볼 일본어 버전)'을 정식 발매한다.

웰메이드 음악으로 매 앨범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며 'K-POP 대명사'로 불리는 두 팀은 '2023 더팩트 뮤직 어워즈'를 통해 팬들을 화려한 무대로 초대할 계획이다.

앞서 '2023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1~3차 라인업으로 에이티즈, ITZY, 트레저, 엔믹스, 제로베이스원, 싸이커스, 보이넥스트도어, 권은비, 잔나비, 에스파, 아이브, 뉴진스의 출격을 예고하며 글로벌 팬들의 화력을 한층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대세 선후배 아티스트들의 합류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2023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오는 10월 10일 인천 남동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최만식/기자

## 2023년 8월 30일 베니스국제영화제 개막...한국 작품 3편 VR 경쟁 부문 진출 쾌거!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가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에서 이탈리아 감독 에도알도 데 안젤리스(Edoardo De Angelis)의 '지휘관(Comandante)' 상영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30일 개막했다.

김진아 감독의 신작 VR 영화 '아메리칸 타운'도 베니스국제영화제 최초 상영을 성황리에 마치고 관객들의 현지 관객과 언론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세계 3대 영화제(베니스, 칸, 베를린) 중 하나인 베니스국제영화제는 1932년 5월 창설돼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영화제이다.

한국 영화 중 장편영화가 한 편도 초청되지 않은 2023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VR 경쟁 부문 베니스 이머시브(Venice Immersive)에 초청된 총 3편의 한국 VR 작품들이 돋보인다.

김시연 감독의 '내 이름은 O90(MY NAME IS O90)', 이상희 감독의 '원룸바벨(ONEROOM-BABEL)' 그리고 김진아 감독의 '아메리칸 타운(COMFORTLESS)'이 그 세 편의 작품이다.

올해 베니스 이머시브 부문에 초청됨으로써, 김진아 감독은 '동두천'(2017), '소요산'(2021)과 함께 '아메리칸 타운'(2023)까지, 미군 위안부 VR 삼부작 작품을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아메리칸 타운'이 진출한 베니스국제영화제의 '베니스 이머시브'는 VR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부문이라 특히 관심을 모은다.

베니스국제영화제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최초로 VR 경쟁 부문을 2017년 신설했고 김진아 감독의 '동두천'은 그 해



2017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최초로 베니스VR스토리상을 수상했다.

2021년에도 '소요산'으로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김진아 감독은 올해 다시 베니스를 찾아 현지 언론의 시선을 끌며 수상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세 편의 작품 모두에 출연한 배우 김보령은 "참여한 미군 위안부 3부작 전작이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상영되게 돼 큰 영광이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아 감독의 신작 VR '아메리칸 타운'은 김진아 감독의 미군 위안부 VR 3부작 최종편이다.

'아메리칸 타운'은 1969년 군산 미공군 기지 근처에 주한 미군의 향락을 위해 정책적으로 세워진 기지촌 '아메리칸 타운'을 시공간적으로 재현한 가상현실 영화이다.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됐고 한때 하루 밤 1000여명의 미군이 방문했던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관리 당국에 의해 미군 위안부라 불렸다.

전작들과 함께 '아메리칸 타운' 역시 미군 위안부 인권이라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관객들의 체험을 통해 느끼게 하는 감각적 재현의 영화이다. 현대경제연구원 CreativeTV에서는 '아메리칸 타운'의 메이킹 필름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영화산업 및 학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진아 감독은 UCLA 대학 영화과 출신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9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여성 감독 최초로 장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장편 상업영화로는 최초의 한미합작영화 '두번째 사랑'(하정우, 베라 파미가 주연), 한중 합작영화 '파이널 레시피'(양자경 주연) 등을 연출했다.

'아메리칸 타운'은 2023년 가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국내 관객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반짝이는 워터멜론' 윤도현, '한국 밴드계의 대부' 역으로 특별 출연! 기대감 증폭!

대한민국의 록 부흥기를 이끌고 있는 윤도현이 '반짝이는 워터멜론'에 특별 출연한다.

오는 9월 25일(월) 첫 방송될 tvN 새 월화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극본 진수완, 연출 손정현, 유병상,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팬엔터테인먼트)에서 윤도현은 대한민국 밴드계의 대부 역할로 특별 출연해 시청자들의 록 스피릿을 제대로 깨울 예정이다.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코다(CODA) 소년 은결(려운 분)이 1995년으로 타임슬립해 어린 시절의 아빠 이찬(최현욱 분)과 밴드를 하며 펼쳐지는 판타지 청춘 드라마. 윤도현이 맡은 인물은 극 중 1995년부터 현재까지 밴드맨의 동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설의 기타리스트.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캐릭터로 과거의 청춘들에게는 한 번 만나 보고 싶은 전설 속 스타이자 현재의 밴드맨에게는 존경의 대상이다.

특히 현재의 은결에게는 우상의 존재로, 과거의 이찬에게는 '밴드맨'이 되기 위한 특별한 존재로 등장할 것을 예고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대한민국 밴드계를 장악하고 있는 윤도현의 존재가 '반짝이는 워터멜론' 속 청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고 있다.

'반짝이는 워터멜론' 제작진은 "그때 그 시절 청춘들에게 밴드 붐을 일으켰던 윤도현 배우가 직접 출연해주셔서 감개 무량할 따름"이라며 "카메라 안쪽으로 록스타 그 자체였던 윤도현 배우의 포스와 연기에 현장에서도 감탄이 쏟아졌다"

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청량한 청춘 판타지 위에 강렬한 록 스피릿을 더해줄 윤도현을 만날 수 있는 tvN 새 월화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오는 9월 25일(월)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 '보이즈 플래닛' 출신 TOZ(티오지), 27일 정식 데뷔 확정...일본서 데뷔 쇼케이스 개최

Mnet '보이즈 플래닛' 참가자로 구성된 4인조 보이그룹 TOZ(티오지)가 오는 27일 정식 데뷔한다.

7일 TOZ(티오지)의 소속사 YY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TOZ(안토니, 하루토, 유토, 타쿠토)의 앨범 발매를 알리는 커밍순 포스터를 공개했다.

노을빛으로 가득한 포스터에는 TOZ의 데뷔 날짜가 적혀 있어 발매 기대감을 자아낸다. 그리고 포스터 하단에는 표지판 그림을 넣어 TOZ의 새로운 여정을 표현했고, 상단에는 앨범명 'FLARE(플레어)'가 감각적인 글씨체로 적혀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TOZ의 데뷔 앨범 'FLARE'는 TOZ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Flare)의 의미를 담았다.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첫 앨범인 만큼, 데뷔 앨범 'FLARE'를 통해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끌고 존재감을 알리겠다는 포부다.

또한 TOZ는 데뷔 앨범 발매 소식과 함께 쇼케이스 개최를 알렸다. 앨범 발매 전인 23일 토요일 PIT에서 'TOZ Japan Debut Showcase'를 통해 팬들을 만나는 TOZ는 '보이즈 플래닛'에

서의 모습을 뛰어넘는 4인조 완전체로서의 진면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팀으로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인

만큼 TOZ가 어떤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만식/기자



제 33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The 33th Gyeongbuk Sports for All Festival

2023.9.22.(금) - 9.24.(일) 3일간

울진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김용임

박지현

양지은

**개회식** 2023.9.22.(금) 17시 / 울진종합운동장 축하공연 [식전] 김용임 / [식후] 박지현 | 양지은

※ 개회식 참가자 전원 선물증정 및 사은품 천만원 상당 추첨

[주최] 경상북도·경상북도체육회 [주관] 울진군·울진군체육회 [후원] 대한체육회



# 아산시 박경귀 시장 “뮤직ON페스티벌’, 온양온천시장에 새로운 활력되길”

## 9월 8일부터 3일간 온양온천시장서 ‘뮤직ON페스티벌’ 열려

9월 8일부터 3일간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온양온천시장 뮤직ON페스티벌’이 온양온천시장에서 개막했다.

‘온양온천시장 뮤직ON페스티벌’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 온양온천시장 브랜드를 재확립하기 위해 기획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온양온천시장 상인회는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올해 1월 선정됐으며, 온양온천시장상인회와 온양온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주관해 축제를 기획했다.

지역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한 이번 축제에는 퓨전 가야금 공연과 댄스 퍼포먼스, 버스킹, 가수왕 선발대회와 라디오 DJ 파티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온양은 아산의 원뿌리이고, 온양온천시장은 조선 왕실의 휴양·치유 시설이었던 온양온천과 온양행궁터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아산 역사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닌, 우리네 이웃들의 삶과 역사, 문화가 스민 공간”이라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소시민들의 추억이 하루하루 쌓이고 있는 온양온천시장의 매력은 더 널리 널리 알려져야 한다. 앞으로 3일간 열리는 ‘온양온천시장 뮤직ON페스티벌’이 온양온천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특화된 지역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천안흥타령춤축제 2023’ 개막 한달 앞으로

##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천안시 일원에서 개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3’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9회를 맞는 천안흥타령춤축제는 ‘도전과 창조정신이 어우러진 춤’을 주제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천안종합운동장에는 흥타령극장(주무대)을 포함한 4가지 특별 무대와 기념 조형물, 포토존, 체험·홍보부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메인 행사인 전국춤경연대회는 국내 최고의 춤꾼들이 참가해 6개 분야(일반·청소년·흥타령·스트릿·대학무용·댄스컬부)에서 경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부 대상 상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2.5배 상향되고 ‘흥타령부’를 추가로 운영한다.

올해 국제춤대회는 코로나19로 참여가 어려웠던 지난해 대비 10개 팀이 늘어나 17개국 17개 팀이 참여한다. 세계 우수 해외무용단의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각국의 전통춤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시민들과 즉석에서 벌이는 길거리 댄스배틀과 천안흥타령춤축제 공식 안무 배우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시민참여형 경연 맞춤대첩의 운영 규모와 상금이 확대된다.

특히 축제 프로그램 흥미 조사 1위로 뽑힌 거리댄스 퍼레이드가 기존 신부동 구간에 더해 추가로 불당동 구간까지 확대됐으며 37개 팀 2,500여 명이 참여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공연 ‘브레이브스 심어홍쇼’와 어린이 직업체험존 키자니아, 어린이 놀이터(에

어바운스) 등이 풍성하게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이외 축제장에서는 댄스컬 댄스전 공연, 프린지 페스티벌, 춤을 주제로 한 기획공연, 각종 체험행사, 먹을거리 장터,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과 농특산물한마당 큰잔치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축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편성과 축제장 화장실, 수유실, 안내소, 매점 등도 확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흥타령춤축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동순 대표이사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축제장 현장과 관람객 동선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관람객에게 바가지 요금 없고 흥 넘치는 축제로 기억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 이번 주 토요일 전국 각지의 종이비행기 한강에 뜬다... 서울시,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 9월 9일(토) 11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23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개최

수도권, 제주, 부산, 광주, 진주, 창원, 김해, 울산, 대구, 익산, 서천, 강원 등 전국 49개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의 손으로 쉽게 접힌 종이비행기가 이번 주 토요일 여의도 한강공원에 뜬다.

서울시는 직접 만든 종이비행기로 더 멀리, 더 오래 날리기를 겨루고 종이비행기 세계대회 챔피언에게 날리기 기술을 배우는 2023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를 9월 9일 11~18시 과거 비행장 역사를 간직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는 1916년 한국 최초의 비행장이 만들어졌던 장소다. 1922년에는 비행사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을 계기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한국의 상공을 비행한 역사적인 순간의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5일 축제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전 온라인 접수를 실시한 결과, 접수 개시 6시간 만에 모든 종목이 마감됐을 정도로 이번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덧붙였다.

13회째 열리는 이번 2023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는 사전 접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사전 접수 없이도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세계대회 우승자 강연과 시연’,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 종이비행기를 직접 만들어 맨손으로 날리는 대회다.

13시부터 총 1,000명이 참가하는 개인 대항의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와 ‘오래 날리기’, 총 100가족이 참여하는 가족(단체) 대항의 ‘대형 종이비행기 착륙시키기’ 대회가 진행된다.

개인 대항 종목은 ①유치부 ②초등 저학년부 ③초등 고학년부 ④중·고등·일반부,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종이비행기 날리기 국제대회 심사기준을 적용해 우수 참가자 총 80명이 결정된다.

가족(단체) 대항 종목은 가족이 함께 접은 대형 종이비행기를 목표 지점에 가장 근접하게 날리는 방식으로 경기가 이뤄진다. 우수 참가자 총 4팀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전 접수자는 11시부터 현장 참가 등록을 하고 배부되는 종이를 받아 비행기를 접어 대회에 참가하면 된다.

서울시는 축제 당일 현장 접수한 시민들도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경기를 관람하며 어떤 팀, 어떤 참가자가 이길지 예측해본다면 축제를 즐기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대회 우승자 강연과 시연 : 2022년 세계 최대 규모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레드불 페이퍼 윈스(Red Bull Paper Wings) 국제비행 부문에서 우승한 이승훈 국가대표선수, 세계대회 출전 경력과 기네스 세계기록을 보유한 이정욱, 김영준 선수에게 종이비행기 날리기의 비법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전 접수자, 현장 참가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전시 프로그램 : 과거, 근현대, 미래 비행기의 역사를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는 ‘비행기 역사 전시’가 상설로 진행된다. 현장에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 : 비행기 자유 접기 종이비행기 착륙시키기 훈련을 위해 튜브 구멍에 비행기를 날려 통과해보는 ‘비행기 조종하기’ 항공우주, 종이비행기 등 스티커를 제작해 얼굴·몸 등에 붙이는 ‘비행기 타투 체험’ 모자를 직접 만들어 쓰는 ‘종이 모자 공작소’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현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2023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에 오는 길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3번 출구로 나와 한강공원을 진입해 원효대교 방면으로 8분 정도 걸어오거나, 차량 이용시 여의도한강공원 제1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가벼운 종이 한 장으로 만든 비행기가 얼마나 멀리, 오래 날아가는지를 겨루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는 관람하는 재미도 매우 큰 이벤트”라며, “이번 주 토요일 한강에서 아이들과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금호워터폴리스



##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공급안내

### 1. 공급대상 토지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유치업종	필지수	면적(㎡)	공급가격(원)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전자정보통신	9	999~1,602	1,371,027,000 ~ 2,155,330,000
	자동차 및 운송장비	6	1,425~3,037	1,917,195,000 ~ 4,004,284,000
	신소재	6	1,654~2,827	2,225,622,000 ~ 4,103,955,000
복합용지	메카트로닉스	17	1,361~4,313	1,885,937,000 ~ 6,038,200,000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2	2,995~3,205	6,408,397,000 ~ 6,508,135,000

### 2. 입주가능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전자정보통신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 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운송장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신소재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복합용지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단, A10블록(인공화학산업 집적지)은 C27193(인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재료(해당 사업체에서 제조·완료된 제품 또는 위탁 생산한 제품) 제조업체에 한함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복합용지	전자정보통신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 장비 제조업(C28)
	메카트로닉스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복합용지	• 출판업(J58)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 방송업(J60) • 통신업(J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정보서비스업(J63) • 연구개발업(M70) • 전문서비스업(M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 3.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에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적합한 제조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복합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 4. 공급일정 및 장소 (\*방문접수만 가능)

구분	기간	장소
입주 및 분양신청 접수, 신청예약금 납부	2023.09.18(월) ~ 09.20(수) (10:00 ~ 17:00)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강당)
입주(적격)업체 심사	2023.09.21(목) ~ 09.27(수)	-
입주(적격)업체 선정결과 발표	2023.10.04(수) 10:00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dudc.or.kr)
A10블록(인공화학산업 집적지)필지추첨	2023.10.04(수) 15:00	-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2023.10.10(화) ~ 10.12(목) (10:00 ~ 17:00)	대구도시개발공사 (2층 강당)

### 5. 대금납부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공급가격의 10% (계약체결 시)	공급가격의 75% (매4개월 단위 3회 균등 분할납부)	공급가격의 15% (별도 통지)

### 6. 공급문의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관련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양관리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2층) ☎ (053)350-0337, 0334
입주심사 관련	대구광역시 산업진흥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일로 40 4층) ☎ (053)803-6022
입주업종 및 입주계약체결 관련	(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35 검단백토빌라 101동 301호) ☎ (053)383-8810~1

\*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9. 04.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대구도시개발공사  
Daegu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분양문의  
053) 350-0300